

소년 특집
영양권

함께 가는 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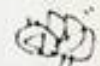
지난 한해 한 뜻으로
한 길을 함께 걸어온
지탁연 가족들!

우리네 아이들의 삶과 꿈
이웃의 아픔과
민주정부수립의 열망을 안고
92년을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해의 잘못과
아쉬움은
93년의 거름으로,
되 돌아보아 힘겨운 우리네 얼굴들
보듬어안고 나아가
새날 새길에서 더욱
굳게 땀날것을 약속합니다.

기쁜 새해 맞이하세요!

92년을 보내며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 께* 가* 는* 길

일하며 생각하며 / 2	남미영
한해를 마무리하며	
아동교육, 제4회 아동권 토론회 자료 / 4	
여자! 남자! -성평등, 인간화 교육	아동교육분과
기획 I '93년 동계수련회 논의 자료 / 19	
탁아운동론	정책소위원회
기획 II '93년 동계수련회 논의자료 / 41	
'93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특집 1 '92 지탁연 12대 뉴스 / 50	
탁아운동의 내용성을 풍부히 했던 1992년!	편집부
특집 2 / 57	
지탁연 가족 앙케이트	편집부
글마당 / 62	
연작시 '아가에게'	사람세상 문학반
활동총괄 / 66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한걸음으로!	
탁아소 별곡 / 68	
뱀이 삼킨 코끼리	채금주
소식과 소식 / 70	
우리들의 목소리 / 78	
문화란 / 81	
편집부에서 / 84	

탁아소 백과 / 3 알아봅시다 / 18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49
지탁연 베풀시장 / 83

표지사진

12월 중순이 되면 각 탁아소마다 재롱잔치를 하느라 바쁘다. 이날은 아이, 부모님, 선생님 등 모두가 1년동안의 탁아소생활을 돌아보고 즐거워한다.

91년 구로지역 온누리탁아방의 재롱잔치 중 오빠들의 율동 한장면이 귀엽다.

『일하며 생각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며

남미영 (구로 새터 어린이집)

세모의 종소리가 가슴을 설레게하고 한해를 맞는다는 기대감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12월이다.

가판대의 성탄카드나 연하장을 볼때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올해가 가기전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올 12월은 왠지 12월임을 거부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기다리며 그 무게를 더하기 때 문일까? 그동안 착취당했던 힘들고 지친 삶의 모습들이 노골화되어 선거라는 국민적 심판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심정처럼 여유를 지닐 수 없어서인 가? 여하튼 거리의 분위기도, 사람들의 관심사도 들떠있기 보다는 지난 날들을 묵상하는 듯하다. 그럼 난 무엇을 했었나? 예년에 비해 시계가 빨리 돌아가거나 달력의 날수가 줄어든것도 아닌데 한해가 이렇듯 빨리 지나가버린 듯한 느낌은 도대체 왜일까? 그만큼 바쁘게 생활하였음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음은 또 왜일까? 마지막 달력을 미련없이 벽에서 떼어내버리기에는 마음 한 구석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생각과 실천의 잔해들이 있기 때문일거다.

작년말 탁아활동의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을 중심으로 고민없이 일을 풀려고 했던 것들을 깊이 반성했었고 92년 한해의 목표는 경험주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활동에 있어서도 사람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1년동안 나의 노력이 탁아활동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했었다. 물론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여지나 불만족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내 삶과 사고속에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뿌리깊은 '개인주의'가

만성위장병처럼 도사리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그 개인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적이 더 많은 듯하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나의 개인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동지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고 보다 많은 애정과 신뢰로 결합하지 못한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한다.

93년을 맞으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민주정부가 수립되어도 우리의 갈길은 멀고 험난 할것이다. 하지만 첫단추를 올바르게 끼워야 한다는 의지와, 끝까지 잘 끼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중에 떨어진 단추로 인해 바늘과 실을 찾아 꿰매야 하는 성실함과 끈기도 요구될 것이다.

더군다나 93년은 탁아활동에 있어서 개정싸움이 전면화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제를 가지고 의지들을 모아 열심히 노력,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활동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실되게 맺느냐의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함께 일하는 교사들과의 관계, 자모들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태도,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활하고 있는 탁아방의 아이들, 남편이나 부모님,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또다른 관계등..

93년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들을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채워넣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내 주위를 둘러본다.

라텍스 고무젖꼭지 알레르기성 습진 유발

탁아소 백과

천연고무유액인 라텍스를 함유하는 고무젖꼭지가 이를 사용하는 유아 또는 어린아이에게 매우 심한 알레르기성 습진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독일의학지가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라텍스젖꼭지를 사용하는 아이가 심한 습진을 일으킨 경우 이들

은 모두 라텍스에 대한 과민체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알레르기테스트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편 아기의 이러한 알레르기성 습진은 라텍스젖꼭지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즉각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5일 새건강 신문)

여자? 남자? - 성평등, 인간화 교육 -

아동교육연구부

들어가는 말

더위를 느끼며 시작한 아동관 토론회가 시작된지 벌써 계절이 두번 바뀌어 이제 따뜻함이 절실한 이 겨울에 4번째의 토론회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성(性)에 관한 것이다.

'성'이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가지의 생각들을 머리속에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성평등 교육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성교육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교사 스스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라 하겠다.

호트러짐 없이 시작과 끝이 일관되게 열심히 듣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성교육의 첫 장을 시작한다.

본말

1. 불평등의 기원

지금은 남녀의 성적 차이가 차별로 굳어져 여남의 관계가 불평등하게 되어있다. 이런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만 사람이 살기 시작할 당시에는 여남의 관계는 평등한 것이었다.

원시시대의 여성과 남성은 종족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불가분의 공생관계로

존재하였다. 여성만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기능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며, 이러한 중요한 생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고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남성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보고 상호 협동적 관계를 통하여 종족보존의 목적을 이루어갔다. 따라서 성역할은 인간의 중요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연적 기능으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쌍의 부부와 그 자녀들을 포괄하던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것은 남성이 식료품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사회적 노동이었다. 이러던 것이 어느때인가부터 남성의 노동은 사회적인 것으로 우월한 것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은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차별이 시작되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시공산제 초기는 모권제 사회였다.

원시공산제 후반기때부터 가축사육과 농업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얻지 못했던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의 분업에 따르면 식료품의 획득과 그에 필요한 노동도구의 획득은 남성이 담당했으므로 관습에 의하여 남성은 새로운 식료품의 원천인 가축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생산력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남성은 노동도구인 노예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썩트기 시작한 사유재산을 남성의 자식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하여 부권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모권의 전복은 남성의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어 여성은 자기의 존귀한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노비로, 남자의 정육의 노예로, 산아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의 역사는 몇단계의 사회발전 형태를 거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여성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성들을 사회적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했다는 것이다. 이전같았으면 묻혀버렸을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늘었고 노동자로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고 있다. 사회활동 중에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역할, 즉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끌어들이면서 가사 노동의 부담을 없애지 않았으며 일부일처제를 확립하면서 매춘이 공공연히 행해지게 되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상품화하여 여성에게 왜곡된 삶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참여는 성평등을 그 기본 정신으로

변혁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단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성을 사회노동에 참여시키며-즉, 남성보다 훨씬 싼 값이거나 남성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그러한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킨다. 성평등 의식은 자본주의로 인해 시작됐지만 남녀평등의 진전은 오히려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 제한되고 왜곡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적인 성격은 여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평등한 평생노동권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이므로 출산과 초기수유, 육아를 해나가는 모성권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셋째 여남 모두가 동등하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세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려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제가 여성에게 주어지지만 특히 탁아교사의 중요한 임무는 성평등 교육을 올바르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 성교육의 의미

우리는 지금 양성으로 나뉘어 서로가 심리적으로 반쪽의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이 속에서 여성의 존재는 더욱 열등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마도 이자리에 '남녀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과 만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화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교사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교육이란 좁은 의미의 임신, 출산, 양육, 남녀의 신체구조, 성행위 등에 관한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교육이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 성평등 교육을 의미한다.

성교육은 각 성의 역할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그것에 인간을 꿰맞추고 한 성을

의도적으로 다른 성의 하위에 두어 각각 다르게 사회화시켜 나가는 교육이 아니다. 여성이거나 남성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므로 양성이 동등하게 성에 관한 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성평등 교육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성에서의 차이나 다른 역할을 찾기 이전에 바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인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잘못되게 고정된 성역할 개념은 어른이 되어서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 올바른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3. 성역할 개념의 발달

1. 자아의 발달

- 자아의 발달이 성교육의 전제이다. -

성교육은 곧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인간화 교육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교육에 접근해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품성을 지니도록 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성교육을 통해 '내가 여자' 또는 '내가 남자'라는 것을 알기 전에 또는 동시적인 과정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자아개념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아개념을 형성한 후에 그 특성을 나타내는 남자, 여자로서의 차이를 특수성으로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1) 자아의 발달

자아개념이란 외모, 성, 행동 경향, 정서, 능력, 흥미 등의 범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해 느끼고 있는 생각과 태도이다. 자아개념의 발달은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에 관한 개념을 조직해가는 과정이다.

유아에게는 성 자체를 강조하는 성교육보다는 자아개념 형성의 기초로서 바른 성개념을 갖도록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자아개념의 발달의 두가지 영역으로서 자아인식과 자아존중감이 있다.

(1) 자아인식

자아개념의 가장 기초적 수준으로 자신과 타인이 서로 별개임을 알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아 >

하나, 초기에는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대상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둘, 자신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2) 자아존중감

자신의 이미지(자아)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를 기초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유아 >

범주적 자아를 발달시켜 여러 범주중 중요한 범주를 토대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이 시기에 주로 사용하는 범주는 '나이'와 '성'이다. 이 시기 아이들의 자아개념의 발달의 표시로서 '독립심'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 '소유'의 표현을 들 수 있다.

2. 성역할 개념의 발달

유아기 아이들의 성을 범주로 한 자아개념 형성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역할 개념의 이해(2 ~ 5살)

이 시기의 아이는 자신의 성장에 크게 흥미를 느끼고 몸의 여러 기관에 대해 얼마동안 다양한 흥미를 보인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아기 여자, 남자 아이들은 양성의 신체적 차이를 알게 되고 여성 또는 남성으로 자신의 성을 이해하게 된다.

2)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3~4살에 형성되기 시작하여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확립된다. 4살의 아이는 성에 대한 관습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5~7살에는 정확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서 이러한 행동을 수용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관습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생피를 당하거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지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자신의 신체구조에 알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행동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발달이 아이들 발달의 과정이지 학습의 내용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3) 성역할 선호성

4~5살경에 뚜렷이 나타나며 동성지향적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는 동성끼리 놀기를 좋아하며 동성의 부모나 어른을 모방하고 동성의 또래와 놀이를 하므로 서로가 모델이 되어 자기 성에 적합한 활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에 적합한 활동이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 남이 모두 반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동규범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다움의 특성으로서 온순함, 순종, 복종적, 연약함, 무능력함을 들고 남성다움의 특성으로서 공격적, 유능함, 독립적인 것을 들고 있다. 이런 특성은 남성이거나 여성이기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기대되는 여성, 남성으로서의 성격은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에 적합한 행동'이라는 것을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보다 인간적인 올바른 생활의 규율속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자아개념-성역할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 규범, 현상, 다른 삶의 태도 등에 근거한다는 데에서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 아이들의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이들의 성역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두가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고 있다.

1. 생물학적 요인

인간발달의 여러 영역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생물학적 요인이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심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태내의 성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구성요인과 성 호르몬의 분비이다. 성의 결정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태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태아는 남성 또는 여성적 특징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출산시 외부 생식기의 차이를 갖고 태어나게 되며 우리는 외부 생식기만으로 성을 판별한다. 그러나 생후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의 몇년간 분비되는 호르몬의 혈중 비율이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본래 양성성이 있으며 호르몬이 각 성의 행동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성별 차이보다 개인차가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연구결과로 성차가 확실한 측면은 다음의 4가지에 불과하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능력이 우수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 공간적 능력과 수리능력이 우수하며 더 공격적이라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을뿐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2. 사회 환경적 요인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아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성에 따라 구분해서 대우를 하고 성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기대한다. 어른들이 낳은 아이를 대하고 반응할 때 가장 우선되는 단서는 그 아이의 성이라고 한다. 병원에서 출생한 아기를 대체로 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여자 아이의 포대기는 분홍색으로 남자아이의 포대기는 푸른색으로 되는 등 다른 환경이 갖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진다. 이와같이 성역할을 조장하는 환경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주어진다. 여기서는 영향을 주는 사회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 또래, 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와 최초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며 부모로부터 사랑과 권위를 경험하고 행동을 모방하며 그들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관념과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역할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관찰에 의하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어머니와의 접촉이 많으며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을 더 많이 안아준다고 한다. 이는 아들에게는 독립적이기를 더 원하는 까닭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성에 따라 더 유형화된 방식으로 자녀를 다룬다. 대체로 아버지는 딸에게 많은 애정과 주의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아들에게는 딸보다 많은 훈련을 시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딸과 달리 독립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부모가 제공하는 놀이감과 놀이도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다. 남자아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성취와 경쟁을 조장하고 놀이감, 교육적인 놀이감이 주로 주어진다. 반면 여자아이들에게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인형과 요리도구, 집과 관련된 놀이구를 제공한다. 아동 초기부터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놀이감과 놀이가 아동의 이후 역할지각에 관여함으로써 남녀의 성역할 고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속에서 자라는 여자 아이들은 결국 학업과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격려받지 못한다. 그 결과 여성들은 높은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 수반되는 좌절을 겪지 않고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한다. 그러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딸들은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여성적 직업과 결혼생활에 자신의 생애를 걸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학업과 직업성취를 이루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2) 또래

유아전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병행적 또는 연합적으로 놀이를 하지만 협동하지 않으며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거의 없다. 그러나 유아기후기에 이르면 점차 또래간에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며 또래가 어린이의 성 역할 유형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예를들면 어린이가 자신의 성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것은 성의 친구를 보았을 때 그 어린이는 후에 그 놀이감을 가지고 노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아는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성역할 학습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양성의 또래가 모두 성 역할 학습에 영향을 주지만 유아의 동성선호성이 3세경부터 나타난다는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동성의 또래가 성역할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책

책은 유아가 책을 읽는 동안에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 상징하는 바를 음미하거나 자신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성 역할 학습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어린이를 위한 대부분의 그림책이나 동화책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등장인물들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며, 여자들은 감정적, 의존적, 수동적, 복종적이고 능력이 적은 것으로 묘사되는 한편, 남자들은 좀더 총명하고, 창조적, 능동적이며 능력있고 강하고 독립적으로 묘사된다.

직업에 대해서도 성에 따라 유형화되어 제시된다.

5. 성교육의 내용

성교육은 성기 교육이 아니다. 아이의 자아형성에서부터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교육방법도 형식적 교육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태도, 습관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잡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형성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1. 연령별 성교육

1) 신생아기부터 영아기까지

(1)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알기

(2) 자신 또는 다른 사람(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알기(대상영속성 개념의 획득)

2) 유아기

(1) 빈주저 자아(자신의 성, 나이, 키모, 행동경향, 성격 특성, 정서, 능력, 흥미)를 인식하고 발달시키기.

-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 알기

- 문화적인 성역할 인식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성차별적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 성역할 고정관념

자신의 '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에 알맞는 행동하기

* 남자와 여자가 화장실을 따로 다니는 것처럼 남녀가 신체구조상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기

* 신체구조의 차이에 대한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황에 따라 내용을 잡아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의 내용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의 과업이 아니므로 이후 사춘기로 미루고 다만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왜곡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역할 선호성이 나타나는 시기에 남자, 여자 교사와 엄마, 아빠의 올바른 성역할 유형을 보고 배우기

(2) 자아존중감 갖기

-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중요함을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여아인 경우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으로 인해 자아존중감 발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도록 하기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열등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노력하여 자신의 힘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낙천적,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품성은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2. 발달영역별 성교육

1) 신체 발달 영역 - 신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개인 위생, 영양, 안전등과 기초적인 습관을 기른다.

2) 인지 발달 영역 -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인식과 기능에 대해 안다.

3) 정서 발달 영역 -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진다.

4) 사회성 발달 영역

(1) 개인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습관과 태도를 기른다.

(2) 집단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3. 영유아의 성교육에서 임신,출산,양육은 내용으로서 채택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과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다. 양 입장에 모두 근거가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올바른 내용을 우선 교사가 알 것

둘,형식적인 교육의 내용으로서 잠을 필요는 없다는 것

셋,그러나 질문 등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왜곡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결국 이것은 하기는 하되 제한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아직 발달과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고,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릴때부터 올바른 규율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개념을 교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성교를 하고 아기를 낳는 일은 다른 동물에게서 보이는 종족보존의 본능적 욕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노동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능력과 함께 종족보존에 있어서도 ‘애정과 사랑’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개입된다.사랑을 전제로 해야만 인간은 함께 결합하여 사랑의 결실인 다음 세대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애정이 전제되지 않은 성행위는 올바른 사회적 규율에 어긋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래서 안된다.,’

6.교사의 역할

탁아소의 인간관,교육관은 환경과 교육내용 등을 통해 교사는 자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자신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행동하기때문에 이것이 여과없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탁아소에서 탁아교사는 오랜시간을 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아이의 성역할 학습에 교사의 행동은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아와 남아를 평등하게 다루고 성에 구별없이 모든 활동에 참여시키겠다고 의도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교사의 성역

할 고정관념에 의해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자가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뛰어다니니?”

“사내녀석이 그간일에....”

등의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와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이 올바른 성의식,성역할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할것이다.

1.성 역할 고정관념 탈피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 아이들과 대화할때 다양한 생활형태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게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 여자아이에게 ‘예쁘다’,‘귀엽다’,‘착하다’는 말의 반복 사용을 금하고 대신 ‘훌륭하다’,‘믿음직스럽다’,‘올바르다’등의 용어를 사용한다.여자아이가 지나친 치장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 한 성에게는 혼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남자 간호사,여의사,여순경 등)을 초대하여 아이들과 만나보게 하여 성에 따른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한다.

* 남녀 똑같이 조용한 놀이와 활동적인 놀이에 참가하게 한다.

* 남녀 어린이가 모두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성에 따라 놀이를 나누는 것은 피하고 성에 따른 놀이감 제시를 하지 않으며, 항상 같은 기회를 부여한다.

* 음악, 연극, 역할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역할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

2.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

호기심이 늘어나면 성적인 행동과 더불어 유아는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성교육을 성기에 관한 것으로 집착하여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대답을 만들거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한다.

유아들이 많이 하는 질문으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아기에 목욕 장면이나 남자아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엄마, 저 애는 왜 그렇게 생겼어?" 또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여자 아이가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왜 앉아서 오줌을 누요?"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여자 아이들은 오줌 누는 곳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단다. 그래서 서서 오줌을 누면 옷을 버리게 된단다." 또 "여자는 그렇게 있는거야."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기가 자라는 특별한 방(자궁)이 안에 있다는 설명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때 여아가 열등감을 갖게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빠와 목욕탕에 갔다온 아들이 "왜 아빠 것은 더 커요?" 하고 물을 때도 "몸이 작을 때는 작지만 어른이 되면 같이 커진단다."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답이 가능하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와 같은 질문은 동생이 생겼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애가 별걸 다 묻네?" "배꼽으로 나온다."는 대답으로 회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는 조그만 방이 있어서 그 속에서 자란다."는 정도면 된다.

세네살 정도 아이들은 보통 그 이상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질문에 사랑과 임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5~6세 이상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나와요?" "나오는 길이 어디 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상황이 되면 "소변이나 대변이 따로 나오는 것처럼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나오게 된단다."하는 정도면 된다.

3. 성에 관련된 행동에 대처하기

성에 관련된 행동 중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다른 곳에 문지르는 자위행위이다. 보통은 돌을 전후하여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놀게 되고 3~4세가 되면 성기를 자극하여 쾌감을 얻기도 한다. 이 때 "왜 거기를 만지니?" "병 걸린다." "더럽다."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제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못하게 하면 할 수록 눈을 속여가며 만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다른 방에 문을 잠그고 계속하기도 한다. 어떤 아이는 가구 끝이나 창틀에 무심코 몸을 비비고 서 있기도 하며 의식적으로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아이도 한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지나치게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것을 즐기고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행동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놀라거나 지나치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심해지거나 의식적인 행동으로 습관이 되는 일이 없는지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심심하거나 따분하거나 적당한 놀이가 없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원인이 있거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여 욕구불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심심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흥미있는 다른 놀이로 유도하여 적목이나 퍼즐, 블록 끼우기 같이 손을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놀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때에 따라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바깥 놀이를 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크게 야단을 치거나 "너 뭐하니?"와 같이 갑자기 놀라게 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 언어적 전달, 신체적 강화와 훈련이 성구별 없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교사간에 관찰, 분석, 토의한다.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별해서 줄서게 하는 것은 피한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속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역할 등을 기대받고 수행해 나가기 보다는 사회의 불평등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하여 영아때부터 여자와 남자의 성역할을 분리하여 남자의 성역할을 비교 우위에 두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불평등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성교육, 성평등 교육은 곧 인간화 교육이라는 관점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적, 복종적, 소극적, 가정적, 창조적, 능동적, 도전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것은 여성들만의 성향으로, 어느 것은 남성들만의 성향으로 고정되게 분리하여 그것을 어린아이때부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게 심리, 문화적인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생물학적인 성차가 남녀의 역할을 고정시킬만큼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고정된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남녀 모두가 남성적, 여성적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으로 인하여 인간 자신이 왜곡되고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성장되어지고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아이들을 여자나 남자로 키우기 전에 우선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다른 인간에 대한 동료애, 자신의 정서,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솔직하고 사려 깊은 인간성은 여자이나 남자이나에 상관 없이 필요한 것이다.

<토론 주제>

1. 자신이나 다른 교사의 성 차별 의식과 행동에 관해 말하여 봅시다.
2. 올바른 성교육 = 성 평등교육, 인간화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알아봅시다!

교육부 내년까지 새마을 유아원을 유치원과 탁아소로 전환

교육부는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년말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1천1백10개의 새마을 유아원 중 대도시 지역의 4백6개를 사립유치원으로, 농어촌과 소도시지역의 4백63개를 유치원 및 탁아소 겸용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는 나머지 2백41개시설도 해당지역의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유치원 또는 탁아시설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함에 따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설치됐던 새마을 유아원이 모두 내년까지 탁아소 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유치원의 입소연령과 시간을 확대

한편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은 1992년 3월부터 유치원 입학연령을 하향하여 만 3세부터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3월부터는 현행 하

부 3시간의 반일제만을 운영해오던 운영형태를 '지역특성, 유치원 실정, 교육적 필요' 등에 따라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기획 1. / 동계수련회 논의자료

탁아운동론

정책소위원회

1. 그간의 논의 과정

1985년 '지역사회아동교사회'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1987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제기된 고민은 당시의 탁아소활동 일반에 대한 전반적 공유와 이러한 활동이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 지탁연 소속탁아소는 거의 빈민지역에 있는 탁아소들로 (공단지역의 탁아소는 주로 87년 이후에 생겨난다) 당시 빈민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일반이 그대로 탁아활동내에서 고민되어진다. 즉 일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인 아동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과는 별도로 주민 조직화의 일 방편으로 탁아소 공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공단지역에서는 여성노동자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면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주로 현장활동지원의 목적으로 탁아활동이 자리매김되면서 탁아소가 하나 둘 생겨나게 된다. 이들은 탁아활동이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 하나인 육아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취지를 갖고 출발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당시 노동운동의 지원활동으로 민중교회가 그러하였듯이 탁아소는 여성활동가 배양의 장으로서 혹은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사업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탁아소 혹은 교사들내에서는 탁아소활동의 목적을 아동교육 자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탁아활동가들의 개인적 동기 혹은 탁아소 설치 주체들의 동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1988년 하계수련회를 통해 발표된 탁아운동론이다. 여기서

는 당시 탁아활동의 목적성이 수렴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탁아운동은 단일한 목적성을 갖는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성, 즉 여성운동적 측면과 지역운동적 측면, 아동교육적 측면이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결집과정은 결과적으로 각 동기 및 목적성을 꿰뚫는 탁아운동론의 정립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탁아운동을 한 궤로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내적인 요구와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활발해진다. 1988년 서울시 차원에서 88탁아소를 설립하게 되고 이어서 1989년에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간 지역을 중심으로만 활동했던 우리에게 탁아입법이라는 공동의 과제가 주어졌고 이의 해결을 위해 급박하게 우리 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받으면서 매번 수련회마다 탁아운동론을 여러 각도에서 정리하게 된다.

그런 내부적 노력의 총결집이 1990년 도시빈민연구소와 공동으로 집필된 '탁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는 탁아운동이 탁아소 설치주체의 동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의 사회화'를 여성노동자의 주체적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라고 정리되었다.

탁아법 제정요구 및 지원요구부쟁을 전개해 가면서 다시금 탁아운동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990년도의 탁아운동론이 다소 추상적이며 법제정 이후 객관적 조건이 많이 변화하였고 탁아운동이 보다 전문화된 지금, 이전의 탁아운동론이 우리 활동을 규정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인식에서였다.

즉 민간탁아소, 국공립탁아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지금 탁아운동의 주체는 누구이며 민간탁아소, 국공립탁아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탁아활동에서 법제정 및 개정투쟁의 목표나 의의는 무엇인가, 지방행정에 대한 대응활동은 왜 중요한가, 민간탁아소 연대의 원칙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지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은 어디서 제기되는가, 그리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문제인 지역운동과의 관계, 변혁운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의 사회화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각각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

겠으나 현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원칙적인 수준에서나마 정리되어야 하며 이후로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각론이 정리되기를 희망하면서 탁아운동론 정리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글은 그간 활동속에서 제기되어 온 몇가지 문제를 집중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즉 변혁운동과 탁아운동과의 관계 설정, 육아의 사회화란 무엇인가, 이에 따른 여성운동과 탁아운동과의 관계, 지역운동과 탁아운동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운동과 탁아운동과의 관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간탁아소와의 연대에서 그 필연성과 원칙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2. 탁아문제의 본질과 탁아운동의 개념

1) 탁아문제의 본질

탁아문제란 여성이 생리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이 일차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가장 고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활용되어짐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육아문제(탁아문제)의 본질은 여성문제의 본질속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전망속에서 찾을 수 있다. //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제를 지탱해 주는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생에서 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엥겔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전개되는데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나타난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류 최초의 사회인 원시공동체사회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모계제사회였다. 혈통이 모계에 따라 계승되었으며 여성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여성의 '생산에서의 지위' 때문이었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생리적 조건과 관련하여 식량으로 쓰이는 식물을 경작하고 가사를 돌보는 과정에서 원시농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남성은 수렵을 맡았다. 당시 수렵은 불안정한 식량원이었던 반면 작물경작은 보다 확실하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

었기에 이때 여성은 공동체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성차별이 발생한 것은 그 후 인류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 가축의 사육, 즉 목축업의 발생은 농경과 목축이라는 사회적 본업의 발생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축은 번식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축군이 빨리 증대하고 그럼으로써 부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새로 발생한 부가 이전과 달리 개별가족의 사적 소유가 되자, 대우혼과 모권 씨족에 기반한 사회에 타격을 주었다. 이 과정은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왜냐하면 남자가 가축 내 성별분업에서 식량획득과 그것에 필요한 노동도구의 획득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자는 가축의 소유자이자 새로운 노동도구인 노예의 소유주가 되었으나 모계, 모권으로 인하여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자 재산으로 인한 가족 내 지위상승을 이용하여 모권과 모계를 폐지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것으로 일부일처제혼이 확립되었고 여성은 가족에서도 지배권을 상실하고 남성의 성적 욕구의 노예 및 자녀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¹⁾

여성은 인류역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항상 노동하는 존재였으며 여성의 생산활동의 참여형태와 사회적 지위는 경제구조의 특성과 생산양식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남녀 역할 분담으로 인한 여성의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었던 인류초기의 원시공산제 이후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 온 여성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가정은 소비단위이고 사적영역인 반면에 공장은 생산단위이고 공적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아울러 남녀의 역할도 남성은 생산노동 전달자, 여성은 가사노동 전달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은 여성을 계속적으로 생산현장에 끌어들이었으며 독점자본주의인 현대단계에서도 여성의 생산활동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²⁾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노동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사회이므로 자본은 제반의 차별관행은 물론 노동력 자체가 갖고있는 개인적 속성도 모두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1) 이승화,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박영호, 이삼열 외, 「사회과학개론 I」, 백산서당, pp.278-9.

2) 「새로운 사회학 강의」

한다. 즉 성, 연령, 인종 등의 자연적 속성을 차별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전근대적, 봉건적 요소중에도 자본의 활동에 유효하고 필요한 요소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 강화하여 이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자본의 이해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면서 남녀차별의 도구로 작용한다. 자본이 남녀차별을 통해 얻는 이득은 낮은 임금, 산업예비군의 확보, 전체 임금수준의 저하, 노동자 전체의 힘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일차적으로 주부이고 가사노동의 전달자라는 규정은 여성의 생산활동을 계속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결핍으로 인하여 계급 재생산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노동에 참가하는 정도에 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상품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보다 여성들이 안고있는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은 한층 크다. 이런 점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에서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은 자본주의하에서는 ^{1/2}가사노동 전달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저임금 노동력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가사노동(육아)과 생산노동의 문제는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재생산이 개별 가족을 단위로 여성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즉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하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우리는 육아문제의 본질이 자본주의하에서의 여성문제의 본질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탁아문제의 해결방향은 여성문제의 해결방향, 즉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생산노동에의 평등한 참여속에서 찾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탁아운동의 개념

결국 탁아문제는 '최대이윤창출'을 추구하려는 자본이 기존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육아관,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가운데 기존여성노동력을 보다 값싸게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3)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강의」, 동녘, p.41.

4) 박영호, 이삼열 외, 위의 책.

그리고 이러한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로부터 차단되고 철저히 개별가족의 노동으로 남겨진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에 포함되어 있는 육아의 문제가 이와 함께 사회화 되어야 한다.

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탁아운동을 낳게 한다. 따라서 탁아운동이란 개별육아의 해결방안인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이며 이는 탁아운동이 여성운동에서 제기되는 제반 과제중의 하나인 육아의 사회화라는 과제를 보다 전문화하여 해결하려는 대중운동이다.

탁아운동이 '육아의 사회화'를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라면 운동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은 '육아의 사회화'가 갖는 함의를 정확히 규명해냄으로서 밝혀질 수 있다.

3. 육아의 사회화

우리가 그간 탁아운동을 벌여나가는데 있어서 겪어왔던 혼란은 많은 부분이 바로 '육아의 사회화'가 무엇이나에 대한 해답의 빈곤에서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탁아소가 양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 사회화의 완결이나, 국공립탁아소와 민간탁아소의 역할과 비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비용부담의 공공성이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별도로 탁아제도가 양적으로나 비용부담에서 공공성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육아의 사회화가 이뤄진 것인가,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진보적 탁아운동이 제도요구투쟁영역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이 탁아운동과 관련하여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소위 양과 질에 관한 문제제기 및 주장은 둘 사이의 관계설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채 서로 분리되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육아의 사회화'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어디를 보아도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선각자들의 경우 육아문제의 기원에 대한 입장과 정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여성문제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주 적은 부분을 할애했고 자본주의하에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도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하나의 운동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육아의 사회화의 개념을 정리해 내는 것은 지금의 운동주체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하지만 정리자의 역량부족으로 충분히 설득력있는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처지가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점과 우리들이 이 작업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속에서 아주 거칠게나마 몇가지 의견을 내고자 한다. 이를 시발로 하여 이후 연구부차원에서 보다 명료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글에서는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 활동속에서 유추되는 바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다.

먼저 '육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 국가의 가족사상 혹은 가족법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적인 가족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는 가족에 대한 보호와 원조방법을 강구하고 가족 그 자체는 자본주의로 인해 감염되어진 허위성을 벗겨내어 진실한 '성애'와 상호존경에 기초한 혼인에 의한 자식으로 성립된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시즘 서적에 나타난 육아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서는 가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프롤레타리아가 채택해야 할 정책들 가운데 '상속권 폐지', '모든 아동에게 대한 공공 무료교육', '아동의 공장노동 폐지', '교육과 물질생활의 결합'을 들고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인 베벨은 그의 저서 '여성과 사회주의'에서 미래사회의 가족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식사 조리소, 중앙세탁소 등에 의해 현재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이 필요없게 되며 유아보육, 어린이교육 등도 모두 사회가 책임지게 된다고 하였다. 레닌도 '위대한 창의'에서 소규모의 가게를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사업으로 개조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공공적인 자녀교육과 교육시설의 충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⁵⁾

5)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 이래 전반적으로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가족사멸론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가능한 한 사회주의적인 건전한 것으로 보아, 가족에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단체, 조직의 힘으로 원조 또는 보호하여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福島正夫, "사회주의의 가족법 원리와 정책", 福島正夫 외, 원화용 역, 「가족」, 한울림.

근래에 소련 및 동구제국에서는 가족법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과 개정이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정도에 수반하는 각 나라의 사회적 제관계의 발전과 인간상호간의 관계, 특히 가족관계 및 사회주의사회 속에서의 가족지위의 변화, 발전과 명백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입법취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혼인, 가족의 본질과 기능에 부응하여 건강하고 조화된 가족관계의 보호와 조성, 가족 내의 동등한 여성의 권리실현, 모든 면에서 성숙된 사회주의적 인간형성을 위해 아동을 교육한다"고 되어있다.⁶⁾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가족법을 보면,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우 20세기에 들어서 각국의 현저한 가족 변화와 2차 대전후 근본적인 가족법의 변혁을 보이면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따라서 단순히 '자본주의'라는 것만으로는 가족과 가족법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내 수는 없지만 가족도 하나의 사회적 존재인 이상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고도 기초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⁷⁾

가족에 대한 자본주의의 영향을 고찰하려면 우선 공업 발전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증대라는 측면을 주목해야만 한다. 공업 생산이 발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독립 핵가족이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보통 산업의 특질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 독립 핵가족의 증대는 화폐경제의 발달, 가족내 노동에 대한 강조, 장소적, 사회적 이동의 증대 등이 그 요인이라 하겠다. 또한 역으로 공업 생산의 증대에 의한 자본주의 발달에는 독립 핵가족의 광범한 존재가 유리하다. 그리고 병원, 학교, 식당 등의 발달과 가스, 수도를 비롯한 생활 시설의 정비, 생활 물자의 상품화 등에 따라 육아, 교육, 휴양 등 일찍이 가족에 속해있던 많은 기능이 사회화 되고 가족은 완전히 소비 생활 공동체로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가사노동 부담의 감소가 나타난다.

6) 소련의 경우 1968년에 시행된 「혼인과 가족에 관한 소련과 연방구성공화국 기본법」의 18조에 의하면 가족은 사회를 형성하는 세포로서 적극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즉 "부모는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신체적 발달, 교육 및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二神淑子, "소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신분적 권리", 福島正夫 외, 원 화용 역, 위의 책.

7) 西原道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가족법의 발전동향", 福島正夫 외, 원 화용 역, 위의 책.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탁아정책 기초 생략)

육아의 해결에서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가정육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에서는 가족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와 생활의 사회화로 인하여 육아에 있어서도 사회화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육아의 사회화는 육아과정이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⁸⁾ 이를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의 사회화의 정치, 경제적 측면은 육아 문제의 해결에서 법이나 제도,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국가정책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국가의 이념적 경향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 공산주의형 복지국가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중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육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둘째, 보육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넷째, 재원은 무엇인가이다.⁹⁾

이러한 육아의 사회화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요구투쟁, 즉 탁아소의 양적 확대 요구, 탁아제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국공립탁아소의 확대 및 민간탁아소의 지원에 관한 경제적 요구, 국가의 재원 마련 확대 및 비용부담의 상향 조정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 정책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전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문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다. 탁아운동의 특성으로 볼 때 이를 교육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육아의 사회화가 설사 제도적 완결을 보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육의 내용 혹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육아의 사회화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이를 '아동의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 먼저 용어사용에 있어서 양육, 보육, 교육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

8) 김종해, "영유아 보육 발전을 위한 행정정책 지원방안",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발전방안 모색」,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1992. 10.

9) 김종해, 앞의 글.

서 포괄적 의미로서의 '교육'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즉 양육, 보육은 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을 교육과 함께 혼합한 용어이나 여기서의 '교육'의 의미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아동의 주체적 의미로서의 '교육'으로 정리됨이 옳다. 즉 교육이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양식, 올바른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총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생활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는 핵가족화, 자본의 모순으로 인하여 아동과 교사, 여성이 교육을 둘러싼 제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아동발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가정을 벗어나 이를 보완해주는 2차적 기능이 필요하며 이의 완수를 위한 운동주체들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상과 같이 육아의 사회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은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활동함에 있어서 시기와 국면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활동목표(현단계의 당면목표는 탁아제도의 토대구축)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만 집중하여 통일성을 배제한 한 면의 지나친 강조(이는 탁아운동의 전문성과도 연결된다)가 팽배해왔던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면서 보다 완숙한 해결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제도요구투쟁의 단계와 사회복지운동과의 연대의 필요성

탁아운동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활동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논의 및 준비작업, 비용부담에 따른 지원 요구 투쟁, 그리고 선전의 방향으로 국공립탁아소의 확대 및 민간탁아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민간탁아소 운영비 지원 요구, 이의 대중적, 조직적 수행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민간 탁아소와의 연대 구축 활동, 중앙행정뿐 아니라 지방행정과의 대치면 형성을 위한 모색, 질적 담보를 위한 내부적 논의 구축 등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요활동은 탁아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요구투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내부적 혼

란은 제도요구투쟁이 갖는 성격의 문제, 즉 개량성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의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도요구투쟁의 위상 및 의의, 한계를 살펴보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조합운동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설명을 통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했다. 이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투쟁은 개별적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기초하여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이나 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획득하려는 투쟁을 의미하며, 정치투쟁은 '보편적인 사회적 강제력'을 가진 형태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계급운동이라고 한다. 레닌은 이와 약간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정치투쟁의 중심적 문제를 국가 정치권력의 획득에 두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을 통한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행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획득을 올바른 투쟁의 목적으로 상정한다. 정치투쟁, 경제투쟁의 중요성과 함께 제도요구투쟁의 중요성 또한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 강조되었는데 이는 개별적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투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전노동자계급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¹⁰⁾

이와 같이 제도요구투쟁은 전노동자 계급의 요구이고 이는 정치적 운동의 성격을 담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경제투쟁, 정치투쟁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레닌은 제도요구투쟁의 의의를 첫째로 노동자계급의 육체적, 정신적 퇴화에 대한 보호, 둘째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능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요구투쟁의 '정치운동', '계급운동'으로서의 적극적 의의를 평가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요구투쟁이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양보에 의한 개량으로서 체제를 유지, 옹호하려는 시도와 계급투쟁을 체제내의 운동에 한정시키려는 시도, 즉 개량주의적 제도개선의 수준에 위치지워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체제내적 개혁론'의 입장을 극복하는 데 실천적인 것은 '강령' 문제이다.

10)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균, "사회복지요구투쟁의 변혁론적 함의", 성심여자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호, 1991.을 참조하였다.

11) 개개현장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시도는 경제투쟁이지만, 8시간노동제 등의 법률을 쟁취하려는 운동은 정치적 운동이다.

강령은 변혁의 주체와 대상에게 전략, 전술적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요구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강령이론의 체계는 대체로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최대강령체계 - 새로운 유형의 국가와 이의 건설을 위한 과제를 결합하는 체계, 둘째, 이행기 강령체계 - 민중의 변혁적 민주주의 권력과 이의 건설을 위한 과제를 결합하는 체계, 셋째, 요구투쟁체계 - 현재체내의 주요 모순의 작용과 이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독점적 반동화, 민중적 민주주의의 지향 구도에서 필연화하는 민중의 제 요구의 체계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요구투쟁과의 관련하여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행기 강령적 관점에서 대중적 요구투쟁과의 결합문제인데 이의 통일을 통해 변혁 진전의 객관적 상황을 반영한 차원에서 요구투쟁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 행해지고 있는 각각의 활동이 장기적 전망속에서 위치지워지고 자리매김된다면 제도요구투쟁이 갖는 적극적 의미와 함께 변혁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운동과의 연대의 필연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¹²⁾

현재 타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단위는 보사부이다. 즉 타아는 사회복지체제내에 편제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회복지단체들은 거의 유사하게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낭계하는 조건 (냉전체제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부담과 극단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횡, 민중조직과 그 힘의 취약성,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재생산구조의 영향)에 의하여 규정받는다. 이점과 사회복지관련의 모든 단체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인 국가재정중립의 복지정책, 수익자부담위주의 복지정책, 내용이 결여된 형식위주의 정책, 수혜자 참여가 배제된 복지정책이라는 성격에 의하여 다같이 지배받고 있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운동과의 연대의 필연성을 낳는다. 또한 직접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사회복지요구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복지의 향상이라는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투쟁을 벌인다는 점, 그리고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동안 각각의 요구투쟁이 보사부의 분리 대응속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는 점 등을 볼 때 연대가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12) 이는 현재의 수준에 있어서 결합의 정도나 혹은 주체적 역량에 따른 선택여부를 떠난 원칙적인 연대의 필연성이다.

사회복지연대투쟁의 당면과제는 1. 사회복지예산 쟁취운동 (증액운동) 2.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수혜자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가 타아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정확보'와 '참여'라는 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의 향상과 사회복지 내용의 민중지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향인 것이다.¹³⁾

5. 타아운동과 변혁운동과의 관계

우리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타아운동의 변혁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타아문제의 본질이 전체사회 모순과 맞물려 있는가, 즉 타아운동이 본질적으로 변혁적 성격을 담보하는가와 다른 하나는 현단계의 변혁운동의 성격과 조직적 과제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먼저 타아문제의 본질이 전체사회의 모순과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혹은 단순히 성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억압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의 성립과 이의 유지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육아(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가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는 여성노동자의 질곡에 대한 부분적 해결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혁적 속성을 담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타아운동체가 변혁운동의 조직적 과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현단계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이며 여기서 제기되는 조직적 과제는 크게 대중의 일상적, 직업적 이해에 기초한 대중조직, 현단계 민족민주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조직으로서 각계

13)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 복지연구회, "민주적 변혁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대응", 「사회복지운동과 사대위 활동방안 모색에 대한 제1차 간부수련회 자료집」, 1992.10.2.

각층을 포괄하는 통일전선조직, 그리고 변혁운동을 영도할 지도조직으로서 전위 조직의 건설이다. 여기서 통일전선조직은 변혁운동역량의 총 결집체로서 전체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이며 변혁 이후 권력의 담보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대중조직은 각계급 계층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조응하는 한편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고 주체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사체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조직은 이러한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자신의 강령으로 삼아 당면 변혁운동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전선조직의 건설과정은 각 계급 계층별로 정치 조직이 결성되고 그러한 기초위에서 각 계급 계층의 상향적 결의에 의해 통일전선조직의 지도부가 구성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조직은 그 자체로 해당 계급 계층에 대한 정치적, 조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조직은 당면 변혁운동의 민족민주적 과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투쟁조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해당계급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여야 한다.¹⁴⁾

이러한 정치조직의 지위와 역할에 비해 볼 때 여성운동의 정치조직으로서의 현재 여성운동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들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여연을 볼 때 구성 단체가 협소하고 개별 단체에 대한 지도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타부분 관련 사업이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직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여성 대중조직의 주체역량의 취약과 연대사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을 볼 때, 또는 대중조직 수준과는 별도의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여성운동의 통일, 단결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마련된 연대의 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여연의 제반의 문제점을 극복의 과제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개별 단체의 여연 사업의 참여정도나 조직적 결속력이 낮은 원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문운동의 중요성, 해당계급, 영역운동내에서의 위치에 대한 강조로 인해 여성운동체로서의 독자성과 여연으로의 집중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여성운동이 각 부문으로 분화되는 것은 각 부문내 대중의 이해에 입각한 구체적

14) 최동일, 「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백산서당.

사업으로 부문내 여성의 조직화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마땅히 발전되어야 할 측면이다. 그러나 부문운동 일반성의 토대위에서 여성운동으로서의 지향성과 독자성을 대중적으로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여성운동 내 부문운동으로서 탁아운동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문제로 그동안 조직적인 측면에서 탁아운동조직에서 곧바로 변혁운동으로 조직적 참여(통일전선과의 직접적 연결)라는 사고가 잠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진적?) 대중조직인 탁아운동조직은 여연을 통한 전선으로의 결집과 더불어 이러한 위상으로서의 여연을 책임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평가에 기초해 볼 때 개별 단체 및 대중운동의 강화를 토대로 여연의 조직적 결속력을 높이고 여연의 조직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별단체의 부문운동으로서의 통일성을 갖추고 나아가 전체 전선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부문(여성)운동으로서의 탁아운동과 지역운동과의 관계

탁아운동이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해 나가려는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나 '육아'의 문제가 노동력 재생산, 즉 소비영역(집합적 소비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기존의 부문운동과는 별도로 1960년대 이래로 지역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영역을 중심으로 운동적 접근을 시도해온 지역운동과 중층적으로 만나게 됨은 필연적이다.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근거는 생산영역에서 진행되는 계급모순이 소비단위에서 외화, 발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계급관계에 근거한 지역적 차원의 모순이며, 따라서 소비영역에서 모순을 둘러싼 투쟁은 가족이 기본적 소비단위이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게 된다.¹⁵⁾ 먼저 논의의 집중을 위해 지역운동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1) 지역운동의 개념

15) 김한준, 백옥인 외,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한길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역운동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틀, 즉 지역(부분)운동과 지역(주민)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부분)운동은 특정한 단위의 지역에서 특정 계급, 계층의 처지와 조건, 요구의 공통성에 입각하여 자기 대중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지역 차원의 부분운동이다.¹⁶⁾ 이러한 지역운동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개개 부분의 대중운동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그 자체를 하나의 지역주민조직으로 통일적으로 묶기보다는 공동의 사안과 투쟁대상에 대한 전선체로서의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지역(주민)운동은 지역적 공통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벌어나가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는 운동의 시발과 과정, 지도중심 형성 등의 전반적 문제에서 애초에 지역주민이라는 포괄적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¹⁷⁾

따라서 지역(부분)운동이 비교적 포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급, 계층적 조직의 통일성에 입각하여 지역 수준에서 행동의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지역(주민)운동은 비교적 제한된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동일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계급, 계층의 동질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행동통일을 모색하는 지역운동이라 하겠다.

2) 실제 활동에 따른 문제

위에서 탁아운동이 '육아'의 문제가 새로운 운동적 접근인 지역운동의 한 요소로 자리잡음으로서 지역운동과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게 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부분운동으로서의 탁아운동이 지역적 접근과정속에서 중층적 연결고리가 되며, 특히 지역위원회의 활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주로 빈민지역의 경우) 혹은 개인적 경향성으로 활동의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운동을 우위에 두고 지역단위의 총괄적 조직을 모색하는 운동 방향과 부분운동을 중심에 두고 지역을 전술적 활동공간으로 설정하는 운동방향과의 차이점

16) 백옥인, "현단계 도시운동의 성격과 과제".

17) 송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도시주민지역운동」, 한울.

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각 탁아소별로 혹은 지역별로 활동의 주안점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분운동으로서의 탁아운동의 고유성이 담보되면서 지역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적 특성에 연유하여 탁아운동의 고유성이 사상된다면 이미 그것은 탁아운동의 본래적 영역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려는 고유 과제를 잃지 않으면서 지역운동과의 통일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7. 자모조직의 전망에 대하여

자모조직에 관하여 그간 우리의 활동속에서 정리된 것은 개별자모회가 나아갈 방향은 상시적인 전국조직보다는 지역조직의 상설화가 현실적이며, 다만 탁아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 힘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때 사안별로 결집해낸다고 논의를 모은 바 있고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개별자모회의 향후 조직화 방향에 대하여 우리 내부에 아직 뚜렷한 대안이나 성공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에서는 조직화의 가능성에 대한 추상적 전망제시가 가능할 뿐이다. 지역 자모회 혹은 지역의 상설조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1990년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 운동의 주체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역운동의 주체형성 방법에는 하나의 지역운동체에 지역주민을 단일한 대오와 형태로 꾸리는 방법과 각기 자기 대중을 갖는 부분운동단체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연대하여 지역수준의 상위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슈와 대상에 대항하여 주체를 꾸리는 방법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지역운동의 주체는 지역주민 그 자체가 되며, 전체 주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역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조건이나 계급적 처지, 이에 따른 의식과 정치적 입장의 일치가 비교적 용이한 한정된 단위지역에서 특히 그 실현 가능성이 크다.

후자의 경우는 단위 지역에서의 자기 대중에 입각한 각종 지역부분운동체들이 상호 연대하면서 상층연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이한 지역주민간의 연대에 입각

한 지역주민 단체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운동의 주체는 특정 주민층의 지도와 선도에 여러 계급, 계층이 단일한 사안과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전선적 투쟁체로 수렴될 것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포괄하는 지역이 다소 확장되고 지역운동에 참여하는 대중단체의 수가 많으며 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상위단체가 구성되며 싸움의 성격과 대상이 정치적이고 국가와 자본에 직접 대항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빈민지역인 경우는 전자의 조직화 방안이 가능하겠으나 노동지역이나 그 외 지역의 경우는 후자의 조직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운동의 조직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안별 조직, 부문별 계층조직 등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다양한 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들 상이한 조직간의 연대와 통일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와 방법에 대한 고려와 모색이 요구된다.

(아직 지역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지역전선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활동이 미진한 점은 없었는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모여진 시민회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8. 주체와 대상

1) 주체

어떤 부문운동의 주체세력의 범위 및 각 계급계층별 지위와 역할은 그 운동의 성격과 운동을 발생케 하는 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때 대중운동으로서의 탁운은 한국사회의 성격상 범계급계층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탁운의 주체는 육아의 사회화를 가로막는 제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체 근로대중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탁아와 관련된 모든 요구 성원, 즉 탁아교사, 자모를 비롯한 자부, 조직적으로 결합된 자원활동가, 그리고 탁아관련 전문가 집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탁운의 주체들은 그 상황과 역량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별성을 갖는다.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다. 생존권적 요구로서 탁아문제에 보다 절박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과 아울러 전면적 육아의 사회화가 실현

가능한 사회질서를 건설하고, 탁아문제를 포함하는 한국사회내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총체적 해소를 가능케 하는 중심 주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 - 특히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중심적 역할이 요구된다.

중산층(사무직 혹은 전문직)의 경우에는 탁아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육아문제의 개별적 해결을 부분적으로나마 담보할 수 있는 물질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함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탁아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책임지기에는 개량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민권리의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고, 일본의 경우에 일하는 어머니들이 주체적, 주도적으로 탁아소 설치를 요구했던 운동이 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볼 때, 육아의 문제가 일정 조건에 달하면 이들의 역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좌절되었지만 얼마전 과천 시민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탁아소 설치요구가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탁아교사들을 중심으로 탁아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탁아제도의 단절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험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탁아소의 경험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설치요구투쟁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개별적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아버지들도 탁아문제의 해결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왜곡된 의식때문에 이는 보다 세심한 변화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국공립탁아소나 민간탁아소에서 종사하는 교사들 또한 중심세력이 된다. 교사들 또한 노동여성으로서 보편적 육아문제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탁아활동의 주체이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갖는 교육노동자라는 자기존재로 인해 교육내용과 환경의 질적향상, 교사복지해결이라는 특수한 자기과제를 갖고 국가권력과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제는 탁아문제의 전체적 해결을 통해서만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면투쟁에서 이러한 투쟁과 자기 과제와의 결합도를 높여나가면서 그 중심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앞에 있는 탁운의 구체적인 제세력에 관한 성격규명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한다. 즉 국공립 탁아관계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공립의 경우 원장과 교사의 차별성이 있는가, 민간탁아소 탁아관계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탁아소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대상

탁아운동의 대상은 '개별화된 육아'를 강요하는 제반 사회적 조건, 특히 자본에 이해를 둔 국가권력이 된다. 즉 전사회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여 육아의 문제를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본과, 이를 옹호하며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최소화하려는 국가권력이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복지부문과 마찬가지로 탁아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해결되지 못하는 '잉여가치의 해외유출'이라는 한국사회의 종속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른 실천은 탁아문제의 해결이 국가와 사회, 기업의 책임과 의지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며, 탁아예산의 전면확대 운동을 방위비 삭감운동과 함께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9.탁아소 연대의 필요성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탁아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즉 국공립탁아소, 민간가정탁아소, 직장탁아소가 그것이다. 이는 그간 10년간 지탁연 소속 탁아소를 비롯한 비영리 탁아소만 있었던 반면 이제 다양한 기반의 탁아소로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각 탁아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들과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관계를 가질 것인가가 비중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국공립탁아소가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탁아교사의 노동자적 권리의식에 입각한 교사운동이 전개되어 왔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르지만 일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이들의 활동이 제기될 것이라 여겨진다.

민간탁아소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는 우리나라 탁아사업의 90%이상을 민간탁아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이들을 민간탁아소 지원

확보 등 다양한 복지요구부쟁의 대열에 합류시키지 않으면, 설사 탁아소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우리나라 탁아사업의 공공성이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운동의 대열로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직장탁아소는 설치의도가 탁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직장탁아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 기존여성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장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업장들은 자력으로 탁아소를 설치할 조건이 안되므로 어차피 국가에 직장탁아소 지원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우리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탁아소의 민주적 운영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가구당 60만원 미만」이란 아동지원기준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500명이하 사업장의 직장탁아소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주어진다. 그리고 직장탁아소는 교통난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탁아소에 비해 그 비중이 덜 하겠으나 현재는 다양한 탁아소가 많이 생겨나야 하는 시점이고, 탁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므로 직장탁아소 설치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 및 연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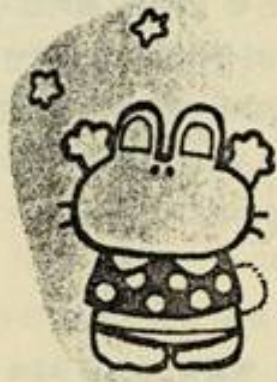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다 선진적인 지탁연의 탁아교사들이 할 일은 너무도 막중하다. 지탁연 산하의 탁아소가 법제정 이래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었고 조직내 탁아소의 증가가 매우 둔하게 나타나지만, 탁아운동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탁아운동의 주체적 힘을 확대시키는데에 이러한 활동과 조직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전체 탁아소, 탁아교사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탁아교사의 경우, 아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전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화에서는 중앙 차원의 연대보다도 지역별 차원의 만남과 연대 조성이 더 크게 요청된다.

18)그렇지만 조직적 연계의 방도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 고 도 서 및 자 료

1. 고성국, 차성수 외, 「사회과학개론 2」, 백산서당.
2. 박영호, 이삼열 외, 「사회과학개론 1」, 백산서당.
3.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동녘.
4. 앵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5. 송실대 기사연, 「도시주민 지역운동」, 한울.
6. 쉬바르츠,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 중원문화.
7. 송실대 기사연, 「사회발전과 사회운동」, 한울.
8. 福島正夫 외, 원화용 역, 「가족」, 한울림.
9. 김한준, 백옥인 외,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한길사.
10. 최동일, 「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백산서당.
11. 한국여노협, 「일하며 키우며」, 백산서당.
12.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발전방안 모색」,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1992.
13. 여연, 「민주여성」.
14. 최균, 「사회복지요구투쟁의 변혁론적 함의」, 성심여자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호, 1991.

93년 동계수련회에서 논의된 자료가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탁아운동론'과 '93년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내용을 정독해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동계수련회에 12월 송년특집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2. / 동계수련회 논의 자료

'93년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1.머릿말

1993년은 우리나라의 탁아사업이 비전문적이며 시대적 조류에 따라 양적조절만을 계획하는 일관성없는 미봉책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탁아사업이 시작된지 70여년만에 법을 제정한지 3년을 맞는 때이다.

우리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활동내용과 방식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는 '91년 이후, 즉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간에) 법, 제도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변화에 따름이며 이러한 가운데 지탁연은 합법적인 투쟁과 반합법적인 투쟁을 적절히 배합하는 가운데 탁아운동의 제 과제를 달성해나 가야 함을 인식하였다.

91년 활동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에 따른 각각의 평가와 함께 두 가지 전술을 채택하는 한편 신고지역은 제도권내 투쟁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낮은 수준의 제안서, 질의서를 기본으로 보육위원회 참여와 청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합법적, 공식적 창구를 이용하여 우리의 요구를 제기, 관철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신고, 거부지역이 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가운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91년 말의 '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내부 토론회'는 이후 지탁연이 지원요구투쟁을 벌이기 위한 첫 단계로 자리한다.

92년은 91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내부조직역량강화와 당면한 탁아현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전문적,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창조적 방도 모색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즉 법 제정 이후 정책적, 제도적으로 탁아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정부측의

의도에 한편으로는 대응할 만한 탁아이념의 생성, 탁아정책의 제시와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끊임없이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보사부 탁아정책을 올바르게 견인해 왔으며 제한적이거나 아동별, 시설별 지원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에 우리의 존재와 탁아문제의 현실을 알릴 기회를 가졌다. 특히 92년 말의 국회 예산안 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은 시기성에 있어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이후 우리가 벌어야 할 국회 싸움의 진로를 밝혀주었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탁아문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으로 입안하는 한편 사회복지로서 자리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술한 바대로 91, 92년의 활동은 탁아운동의 전개과정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는 지탁연이 제도권내에서 세력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위치의 부상을 가져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긍정성속에서 우리는 이후 93년의 활동, 장기적으로는 탁아운동체로서 가져야 할 과제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제도권내 투쟁이 가지는 한계, 즉 개량성을 주의해야 하는 한편 지탁연의 회원탁아소의 역량안정과 세력확장을 위한 조직적인 대안, 일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합법공간내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보다 세련된 전술구사와 창조적 사업방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2년에도 우리는 지탁연 내부조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전체적인 평가가 규합이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과제들이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대략적으로 봤을때 우리는 지탁연이 단일대오로서 힘을 갖기위한 성원들간의 단합과 조직체계의 정비, 활동력 강화등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93년의 상황은 올 한해 활동속에서 이루어낸 조직력의 강화를 토대로 각 지역위원회의 역량 안정과 강화작업이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93년은 지탁연이 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이는 연합회 상부에서의 작업과 각 지역위원회 작업이 하나되어 나갔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합회 차원에서는 지역위원회 역량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깊이있고 현실적인 방도의 고민이 사업의 채택과 배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소속 탁아소들은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정당성, 주체성을 가진 가운데 각 지역 탁아사업의 중심단위로 자리하고 지역내에서 타 민간탁아소를 규합

한 가운데 지역권내에서 탁아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낮은 수위에서라도 탁아운동의 제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93년도의 사업을 펼치기위한 전제이자 담보는 지역위원회의 역량안정과 강화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자. 아울러 공동투쟁의 내용을 생산하고 지역별 작업과 연합차원의 작업이 세분화 되는 한편 그속에서 통일집중성을 확보하는 것, 세련성과 전문성을 가진 가운데 93년도의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2.93년의 전망과 진로

이제 93년을 가까이 들여다 보자.

전술한 상황을 보전대 93년의 활동도 올해의 연장선속에서 전개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93년의 변화된 상황이 예측되며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될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로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정권교체의 혼란을 무마하기위한 유화 정책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민주정부의 내용과 꼴을 가지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들을 것이고

둘째로는 이번 대선투쟁활동을 통해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셋째로는 보사부는 그간 영보법제정 2년동안의 사업을 무질서하고 즉자적, 임의적으로 벌여 탁아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법과 제도가 과연 있는지, 이를 집행할 정책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영보법제정 이후 2년동안의 사업의 혼란을 정비하고 변화된 정책, 강력한 행정력을 가질것이 예상된다. 이 기조는 96년까지 탁아소의 숫적확대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는 그간 실시되어왔던 지자체는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시, 구의회의 제자리찾기와 제기능을 찾아가기위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일것이 예상된다.

93년의 대강의 윤곽속에서 좀 더 좁혀서 우리의 상황을 짚어보자.

1) 93년은 영보법 제6조에 따른 3년의 경과조치가 별도의 연기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 94년에 마감되므로 경과조치 마감 1년을 앞둔 시기이다.

2) 91년, 92년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상정한 것은 93년은 영보법개정의 전면화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보법 개정의 유리한 고지를 마련할 시기로서 93년이 자리한다.

이제 우리는 93년을 전망하며 이전까지의 단선적인 요구투쟁의 대상 - 불특정 대다수 국민에게 탁아문제를 선전, 또는 국가에 대한 요구 등 - 이 보다 다양하게 드러났음을 주목해야겠다. 법개정, 예산확대를 위한 국회싸움, 보사부등 탁아사업 관련 행정부서(내무부, 노동부 등)와의 싸움, 지방자치단체등 지방행정과의 싸움, 지방의회 작업 등.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행정입법의 전형적인 사례로 모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사부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케 하여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고치고 입안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각 투쟁의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는 면에서 복합성, 중첩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각 투쟁의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파악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1. 93년은 경과조치 마감을 1년 앞둔 시기이다.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유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보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 등이 ...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법 부칙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시행규칙 제7조, 8조에 명시된 보육시설의 시설기준과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 등에 대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육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 쫓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과 종사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에 대해 요구해 들어갈 수 있다. 시설확보를 위한 지원, 무자격자를 위한 양성교육기관의 지방설립, 양성교육에 있어 현직, 미혼교사에게 장학금 혜택 (현재 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 기혼여성에게 장학금을 지원), 자원활동가 지원경비 등과 더불어 경과조

치기간의 연장조치 등 등.

이는 경과조치관련 투쟁이 한편으로는 법개정투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정단 위와의 싸움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전면화 시기이다.

법 개정은 보통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으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전면개정이니 부분개정이니 하는 것을 엄밀하게 나누기에는 어려우며 단지 개정의 정도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나뉜다고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전면개정이라는 의미는 대개의 경우 기존법을 몽땅 뜯어고 치는 것이다. 이르기 위해 우리는 대체법을 가져야 한다. 즉 지난 92년초에 만들어졌었던 '개정안 마련을 위한 모임'에서 만들고자 했었던 개정안이 그것이 될 수 있다.

부분개정이라는 의미는 모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 또는 낱말 등을 고치는 것이다.

흔히 영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예를들어 수혜자 부담원칙을 못박은 모법 제21조 비용보조 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용보조와 관련된 모든 항이 바뀔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60만원이니 70만원이니 하는 것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영보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주요모순의 전면적인 수정을 통해령과 규칙 등의 세부사항까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령과 규칙 또는 지침상의 문제조항을 개정해나가는 방향 등이 혼재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생리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모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그 하위법은 그 모법에 규정당한다는 것을 넘두에 두자.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대체입법작업을 위해 우리의 사상과 이념, 정책을 정교화함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집단들과 함께 이를 구체적인 법안으로 완성하는 작업, 입법청원작업을 벌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말한바대로 부분개정을 통해 전면개정의 효과성을 갖는 중점적인 개정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어내어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91, 92년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후자로 비중이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의 확대라는 전제속에서 지원선의 현실화등의 요구를 했던 것 등.

따라서 우리는 개정의 항목이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거부전술을 채택한 지역의 이후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전자의 경우이던 후자의 경우이던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면들을 짚어야 한다.

1. 법투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1) 운동에서 법이 갖는 의미 (일반론)

- 운동의 발전과 법 개정, 대중운동과 법, 법 개정투쟁,

2) 탁아운동과 탁아법과의 관계

탁아운동은 육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육아의 사회화는 변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탁아운동은 변혁적 성격을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변혁사회를 이루기 이전까지 현 체제내에서의 가장 완벽한 복지(탁아운동에서 복지와의 관계는 정립되어야 한다)를 이루어야 한다. 즉 현 체제내에서의 법은 운동의 장기적 변혁의 목표를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은 탁아운동의 최종목표는 아니며 운동목표를 향해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야 할 단계적 목표이다.

2.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위한 정책생산이 되어야 한다. -개정의 내용과 항목에 대한 논의

법 제정이전 우리가 요구했던 법으로의 개정과 그를 위한 법개정이 목표가 될 수 없다.

법 제정 이후 2년간 제도내에서의 경험과 변화된 상황 (인가, 지원, 민탁연대, 정책생산, 사대위 등)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95년부터 유치원에 종일반 신설, 국가지원의 확대, 새마을 유아원의 경과조치 연장 등)에 맞는 즉,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탁아정책의 생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것이 법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책생

산단위와 개정안 마련을 위한 단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 제도권내에서 보육사업화대를 위한 투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투쟁대상에 따른 전문영역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1)대 국회 투쟁

영보법 개정투쟁

예산투쟁 : 앞으로 예산투쟁은 매년 정례화 되어야 한다. 매년 예산내역과 확대를 위한 예산싸움과 법개정을 위한 국회작업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사대위와의 연대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2)대 보사부투쟁

매년 바뀌는 보육지침에 대해 년초 지침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우리의 요구투쟁과 현실적 근거마련을 위한 대중적 중앙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중앙차원의 단위 (현 개특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아갈 것이다.

3)대 지방행정단위, 지방의회 투쟁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역 단위별 요구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개특위)단위별로 요구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역위원회의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지역내 민탁연대를 통해 보다 확대되어나가야 한다.

4. 정책생산단위와 법개정안 마련 모임 그리고 대국회, 대보사부, 대지방단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단위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차등이 두어지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역량에 맞는 전략, 전술적 사업의 배치가 되어야 한다.

5. 보육위원회 활성화 작업, 보육 정보센터 요구투쟁, 기타 양성교육장학금 요구, 현직교사, 미혼교사에게 노동부장학금 요구 등 ... 지역별, 사안별 일상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6. 전 보육시설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 1> 신고거부지역의 당시 입장을 재고해 보자.
거부를 하나의 전술로 받아들이고 사업하고 있는가?
지금은 양 입장을 평가하고 통일대오를 갖자.
- 2> 미인가 탁아소의 합법화의 가능성과 그를 위한 투쟁의 중시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
경과조치와 미인가 지원요구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자.
- 3> 먼갓보육시설의 보다 광범위한 대중화, 조직화를 위해서는 먼갓보육시설의 지역별 조직을 결성하자
이를 위해 지역내 우리의 차별성과 특수성에 맞는 사업의 전개를 넘어 지역적 요구와 보편적 요구를 지역단위로 부터 전개시켜나가야 한다.
- 4> 기탁공 등 빈 보육단체의 상층연대에 대한 모색

93년도 개정활동의 대강의 일정

93년	국 회	보 사 부	지방행정	연합회 일정	지역별 일정
1		중앙보육위 소집.	지원선동의 가구조사완	실태조사분석 완료	부산 미인가 탁 아소 대처 준비 각 지역별 지침 분석과 교육. 1월부터 지역별 특수요구사항 준비
2		93보육지침 나옴	료	지침분석, 요구 안 마련, 방문 준비	
3					
4					
5	추 경	예 산 안	심 의 <		
6				요 구 대 회	
7				국회투쟁준비	
8					
9	국회 예산안 심의	보 육 위	원 회	공 청 회	
10					
11					
12	본	회	의		

3. 맺음말 - 논의해야 할 사항

1. 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지가 점검되어야 하고 93년의 활동목표, 중점사업을 논의하자.
2. 93년의 활동목표와 중점사업을 구체화 하는 가운데 내부의 생취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3. 93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외화, 선전시키는 방도에 대해.
4. 인천의 민보련 사례를 통해 지역별 특수성속에서 전 지역이 배울 수 있는 모범, 보편적 원칙을 뽑아보자.
5. 지역위원회 역량안정과 강화작업을 위해 중앙은,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

= 사회동향의 변화를 읽는 법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는 [사회변동의 흐름]이다. 사회의 변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은 사회문제의 연속적 변화양상을 추적해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1. 사회운동의 변화를 이슈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해내는 방법이 있다. 사회운동의 요구와 주장(이슈)의 변화에 민감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 부문별 단체들의 활동, 특히 새로이 만들어지는 단체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각 사회단체 및 이익단체의 리더들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도 중요하다. 3. 자신의 관심 영역을 보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문과 지면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운동, 여성문제의 경우에는 여성의 사회문제 및 각 사회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동아일보의 여성면, 학생운동의 활동과 대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체크하려면 한국일보, 시국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사회운동의 구체적 활동을 알고 싶다면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주목해야 한다.

특집 1 /

사진으로 보는 '92년 지탁연 12대 뉴스

- 탁아운동의 내용성을 풍부히 했던 1992년

편집부

다사다난했던 1992년, 특히 탁아운동의 질적 도약기로서 평가될 '9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탁연 소속 탁아소들이 모두 힘을 합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헤쳐나와 우리는 이제 '9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편집부에서는 그간 1년을 지내오면서 전체 차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건과 행사들을 뽑아보았습니다.
'93년에도 보다 힘찬 활동을 할 것을 기약하면서 ...

제7대 신입회장단 선출 (1월 4일)



부회장 양은희 (인천)



회장 최현숙 (구로)



부회장 정희연 (부천)

92 동계수련회가 1992년 1월 2-4일간 서울 숭실대 사회봉사관내에서 있었다. 마지막날 진행된 제7회 총회에서 전 회원의 열렬한 환호속에 신입회장단의 선출이 있었다. 2년동안 본 회를 이끌어갈 신입회장단은 1992년 한해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변미양 교사 사건 (4월)

지난 4월 중부지역위원회 소속 해송아기동지에서 활동하던 변미양 교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헌신적인 활동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어오던 변미양교사의 사고소식은 모든 지탁연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후 각 탁아소의 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위한 작업이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성금이 모아지고 병간호조를 만들어 전 교사들이 따뜻한 동지애를 발휘했다. 현재 5개월여의 입원생활을 마치고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일을 구상하고 있다.

어린이날 큰 잔치가 지역과 중앙으로 나뉘어 치뤄져 (5월 1-5일)

우리아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

올해는 작년과 달리 대부분 지역에서 자기 특성을 살릴 지역어린이날 행사를 했다. 견학, 인형극관람, 가족 체육대회 등 .. 중앙에서는 전교조 초등지회 등과 연대해서 공동행사를 했다. 이후로는 우리 아이들에 맞는 세심한 기획이 뒷받침되는 중앙차원의 어린이날 큰잔치를 만들어보자는 평가가 있었다.

아동관 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열려 (6월 10일)



교육연구부 중심으로 지탁연의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올바른 교육관 확립을 위해 마련된 아동관 토론회는 이후 격월로 시행되어 현재 4회까지 진행되었다. 매년 30여명의 교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 열띤 토론과 연구속에서 자리한 아동관 토론회는 이후 아동교육의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우리들이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 (6월 24일)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열려



정부의 탁아정책의 문제점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고 민간탁아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요구대회가 6월 24일,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있었다.

약 600여명의 자모, 교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는 하반기에 있을 각 지역의 지원요구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부산, 대전, 군산, 전주, 광주, 이리 등 지방에서 대거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서 가두행진을 하였다.

하계수련대회 (7월 30-8월 1일)

대전 카톨릭농민회관에서 있었던 하계수련회에서 지탁연 가족의 단합과 일체감을 갖기위해 마련된 계룡산 등반 중 한자리에 모여 활각 !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9월 19일)



누구 말대로 '만나기전에는 몰랐는데 만나보니 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사회복지단체들이 함께 만나 공동활동을 펴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지탁연의 경우 타아문제 해결은 올바른 복지정책의 실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차에 만난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다.

타아, 장애, 시설, 의료보험등 관련단체 8개가 모여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천활동이 뒤따라 하반기에 들어서 국회예산안에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12월 대선시기에 '3당 사회복지정책 비교및 후보자 간담회 보고대회'등을 여는 등의 활발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93년의 활동을 기대하며..

일본 방문 (9월 20일)

일본 오오사카 '유유아 발달연구소'의 초청으로 심포지움에 참석하고 일본 타아소를 둘러보는 가운데 우리활동의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8월에 있었던 일본타아소 관계자들의 지탁연 방문과 본회의 일본 방문으로 이후 한.일 민간타아소간의 활발한 교류를 갖게 되었다.



제5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10월 11일)

'타아예산확보는 엄마,아빠 단결로'라는 주제아래 그 어느해보다 짜임새 있는 기획으로 진행되었다는 어머니 큰잔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맘껏 느끼는 가운데 오랜간만에 가족들이 모여 하루 잔치를 벌였다.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어머니큰잔치가 되기를 기약하면서 아쉬운 발걸음 종종..



제14대 대통령선거 투쟁활동을 활발히 벌여 (11월-12월)

4월에 있어서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탁연에서 그 어느해보다 교사, 자모들의 교육에 비중을 두고 선거대책활동을 벌였다. 특히 각 지역의 민주단체들과 연대하여 벌인 선거시기 활동은 많은 교사들의 참여속에 진행되었다.



간부들로부터 지탁연의 조직을 튼튼히 하고 (12월 5일)

지역대표와 지역간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상,하반기에 걸쳐 열렸다. 연초에는 보사부지침과 지역의 지원요구투쟁에 대한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탁아운동론과 93년 개정투쟁활동에 고민하고 우리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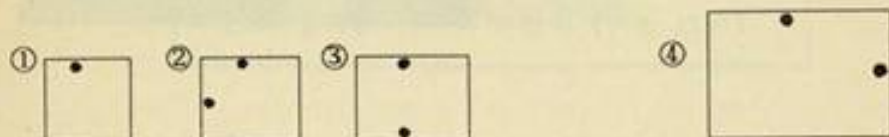
지탁연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간부들의 결의는 이후 활동의 전망을 밝게 비춰주고 있다.

탁아활동의 길잡이, 교사들의 소식지 발간 (5월부터 매월 발간)

각 지역 탁아활동가들의 교육과 선전지침서를 표방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함께 가는 길'은 어려운 조건속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게 점차로 친근한 빛이 되고 있으니,일신 우 일신 할 지라!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 (해설은 89 쪽에)

그림 ①은 0, ②는 9, ③은 6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④는 무엇일까?



특집 2 /

지탁연 가족 앙케이트

편집부

송년 특집호를 기획하면서 지탁연 가족들이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어떠한 소망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앙케이트를 조사하였습니다. 대선활동과 년평가 등으로 각 지역마다 모두 바쁘신지 편집부 앞으로 배달된것이 많지는 않아 빈약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 질 문
- ☆ 1.92년 한해동안의 탁아소생활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적은?
 - ☆ 2.92년 한해동안 가장 기뻐했던 일은? (탁아소 또는 개인생활을 포함하여)
 - ☆ 3.요즈음 가장 고민하는 것은?
 - ☆ 4.93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이름, 나이, 탁아활동경력, 탁아소명 순)

민병은 (23세.2년)



- 1.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 2.아이들의 행동이 아이다울때
- 3.계속할 것인가?

김연희 (27세.3년)



- 1.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매물적으로 일을 해온 점
- 2.어머니 큰잔치에 처음으로 놀이방 식구가 참여하여 신나게 보낸 일
- 3.중부지역의 활동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4.또래 선생님들이 뽕뽕뽕쳐 지역위 활동강화를 이루는 것

박선희 (25세.1년)



1. 또래 친구들에게 때론 감정적으로 대한 점
또래 두목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점
또래 병은 선생님에게 잘해 주지 못한 점
2. 탁아활동을 하는 많은 교사들과 만나 탁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장이 마련되었던 점
3. 교사들과의 끈끈한 애정, 탁아활동의 전망과 교육문제
4. 교사교육 소모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과!

중부 또래 놀이방

박상희 (27세.1년6개월.구로놀이방) 정성희 (34세.6년.온누리탁아방)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가지들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쓰지 못한 것, 자모들과 더욱 친해지지 못한 것, 다른 교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들..) 2. 김장하고, 히터사고, 미끄럼틀로 사고, TV도 사고 (이상 놀이방 비품) 전세보증금도 올려 주었고, 그리고 결혼도 할 것이고.. 3. 없음 (생각없이 살고 있음) 4. 시설 지원 받는 것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와 인간관계 갈등 2. 탁아소의 새로운 후원자 확보와 자모들과 바자회 한것 3. 건강 4. 년초에 적당한 휴식 취하고 활동력 재충전 |
|--|---|

구로지역

이기원 (26세.1년6개월.용기종기)



1.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것과 연애를 제대로 못해 고민한 것.
2. 수원에 방을 얻어 서울에서의 출퇴근을 마감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호~ 내 세상이다 !!
3. 생활이나 활동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즉 창조성이 부족하다고나 할까..

4. '94년 결혼의 해'를 맞이하여 확실한 연애사업을 뿌리내리고 '94년 경과조치 마감의 해'를 준비하며 튼튼하고 풍부한 탁아소 활동을 펼치겠다!!

이 주영 (24세. 10개월. //)



1.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때 내가 짜증날때 감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몇번이나 있었다. 아동 교육에 대해서 계속 자각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다.
2. 처음으로 탁아소에서 아이들에게 당당히 '이주영 선생님'이라고 불렸을때 참으로 보람을 느꼈고 여름 수련회때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며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을 때.
3. 나의 생활력과 경제력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좀 짹짹하고만유
4. 우리 놀이방을 비롯해서 지역의 미혼인 선생님들을 빨리 기혼으로 만드는 것.

전 경숙 (26세. 2년 6개월. //)



1. 피곤하고힘들때 말안듣는아이들영양미를 때렸는데 다 때리고 생각해보니까 그애의 잘못보다 내가 화가나서 때린것 같아 그자리에서 후회했던 기억이 난다.
2. 한 자모가 슬그머니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요즘 아워어 보여요" 라는 말을 하였을 때
3. 내년 휴가기간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보낼까?
4. 결혼

유 이녀 (27세,4개월,꿈동산)



1. 탁아소를 개소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2. 우리아이 바다가 태어난 것
3. 탁아운동의 전망
4. 탁아소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내는 것과 나를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의 건강함

홍미순 (27세.4개월.//)



1. 함께 탁아소 준비를 하던 상부조직의 혼란, 비영리 탁아소에 대한 전망의 부재, 여러가지 일로 인해 탁아소 운영상 주체로서 생각하지 못한 많은 갈등이 있었다.
2. 지금 6개월이 조금 넘는 우리아이 '민'이가 태어났을 때
3. 탁아소가 운영난에 부딪쳐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아이를 항상 데리고 일하면서 마음같이 일이 진행되지 않음
4. 보육교사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싶다

김수연 (29세.3년 6개월. 아이벳 놀이방)

1. 수익사업으로 주점을 했지만 놀이방 운영을 끝까지 못하고 올해로 문을 닫는다는 점과 나의 건강
2. 처음으로 같은 지역내 놀이방 (웅기종기) 자모들이랑 어머니 큰잔치 준비모임을 하고 어머니 큰잔치에 참가했던일, 요구대회에 다녀온 것도 (공동으로)



- 아이벳 자모들과 성대 자활, 수원대 자활과 같이 수익사업으로 주점을 했을 때
3. 놀이방이 문닫는 점과 이후의 문제
 4. 하고자 했던 복지에 관한 공부와 시험에 통과했으면

김정순 (25세.1년.//)



1. 건강나빠서 탁아소 일을 못하고 쉬고 있을 때
2. 수익사업 때 엄마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잘 도와주었을 때
3. 진로 방향

수원지역 위원회

송현주 (24세.3개월.오산 햇살 아기마을)

1. 개원잔치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못 받은 것
2. 우리가 드디어 개원한 것
3. 막내동생 대입학력 문제와 탁아소 겨울 나기
4. 언니가 아들 낳는 것과 탁아소에서 월급 올려받는 것 (현재 월 5만원)

손혜경 (24세.3개월.//) 김미숙 (24세.3개월.//)



1. 없음
2. 없음
3. 막내동생 대입시험
4. 민주정부수립

1. '영진'이가 탁아소를 나간것
2. 힘든 준비끝에 개원
3. 과연 우리애인을 올해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4. 나의 작은 공간 마련 (결혼 등..)

☞ 지방 지역 양케이트는 다음 호에 실습니다.

지방지역의 회원께서는 1월 15일까지 사무국 담당간사 앞으로 양케이트지를 보내주세요.

글 마당

아가에게

안산 노동자문화공간 『사람세상』문학반

2

진달래동산 아가를 만형 상훈이가
노란 민들레 한 송이
실이 선생님 손에 꼬옥 쥐어 줬지요.
“그래 참 이쁘다. 그렇지만 민들레가 참 아팠겠다.”

그래 아가야 !
민들레는 아팠겠지만
그저 아파만하는 민들레는 아니란다
참사랑 희망으로
하얀 흙씨 날리는 이 땅이
아가! 너희들 눈동자만큼
희망의 세상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밟고 꺾어도
얼어 붙은 땅 속 저 밑에서 꿈틀대며
새봄을 향해 솟아나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 아빠가 먹고
아가를 입히고
모든 이웃을 쓰게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노동처럼

마알간 햇살 가득한 세상
아가! 너희들이 있기에
이토록 밝은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이 세상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단다.

아가 ! 너희들이 보고 듣고 나누어 가지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엄마 아빠는
그저 아파만 하는 민들레는 아니란다.
너희들이 살아갈 평등의 세상을
다가오는 새봄을 준비하는
이 세상 주인이란다.
사랑하는 아가!
저 혼자서 시샘하며 피는 꽃이 아니라 이 땅 어느곳에서든
모두 함께 감싸주며 모여 피는
들꽃으로 살자 !
너희들 환한 웃음만 있는 그날 위해
꽃다지 감싸는 마알간 햇살 처럼 살자!
우리 하나 된 가슴마냥
따스함으로만 살자 !

3

진달래 동산 그곳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모여 살더라
싸우다가 울기도 하지만 웃는 걸 더 잘하고
말쟁도 부리고 욕심도 많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떼만 쓰고
어리광만 피우지는 않더구나
웅알웅알 노래도 잘 부르고
깡충깡충 춤도 잘 추더구나 !
혼자서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재밌는 걸 알더라.
진짜로 착한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눠갖고, 나눠 먹는 거라며
은혜 선생님이 일러 준
그것을 알더라.

텔레비전에서 뽀뽀뽀가 시작할 때
엄마는 공장엘 가고

활동총괄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한걸음으로 !!

정권을 교체하고 반드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92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속에서 본회는 대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에서도 지역대선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의 대선본부 활동은 교사조직분과, 자모조직분과와 함께 결합하여 각종 활동을 진행하였다. 교사조직분과에서는 1,2차로 나누어 교사정치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때에는 대선활동의 목표, 의의, 방침등을 결정하고 지역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모조직분과는 참여지역을 보장하여 자모교육전담반으로서 각 지역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교사들 교육을 위한 자모교육실전훈련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정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타성에 젖어 활동했던 자모교육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고민하고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의 대선투쟁활동에 발맞추어 각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지역위원회 들은 지역별로 지역대선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역내 제 단체들과 함께 지역연대구조에 참여하여 교사는 물론 자모들과 함께 공명선거와 민주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들을 다졌다.

활동내용으로는 개별 탁아소 혹은 지역위 차원에서 자모교육을 실시했는데 특히 일상 선전활동(대자모, 주간 소식지 활용 등)이 강조되었다. 그외에 지역내 공감단, 공선행 활동과 지역내 홍보, 선전작업을 해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위우녀회는 시민회의나 국민회의 구조에 함께 하여 자모, 교사가 함께 대선활동에 참여하였다.

대선활동일지: 10/15 중앙의 대선본부구성 10/21 1차 교사정치토론회 10/27 자모조직분과가 자모교육전담반으로 전화하여 활동전개 11/11 2차 교사정치 토론회 11/18 자모교육실전훈련 (워크)11/18~12/18 각 지역 활동 11/28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대위 대선관련 보고대회 12/7~12 각종 홍보물 (여연) 배포주간

간부로 부터 93년의 활동을 준비하자!

'93년 활동을 앞두고 간부교육을 12월 5일(토),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7시까지 지역대표, 개특위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의 일정은 정회원 부회장의 사회로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역운동'(이태호, 주민자치연구소)의 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탁아운동론의 발제(최현숙 본회 회장)와 '93년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에 대한 발제(양은희 본회 부회장)가 있었다.

특히 지탁연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앗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간부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가질것을 제안하였다.

발제를 모두 듣고 조별 토론회를 하였는데 토론 주제로는 다섯가지였다.

1)지역운동과 탁아운동의 관계와 자모조직의 전망에 대하여 변혁운동과 탁아운동의 관계 3)민간탁아소간 연대의 의의와 방도 4)개정투쟁의 발제문에 대한 합의 점검과 93년의 활동목표, 중점사업을 논의 5)93년의 활동목표와 중점사업속에서 내부의 쟁취선에 대한 합의 6)지역위원회 역량안정과 강화작업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별토론은 각 지역이 끌고온 묶여있는 관계로 지역의 상황을 듣고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역운동과 탁아운동과의 관계는 지역의 조건과 교사들의 의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탁아운동의 고유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지역운동의 현재적 모습을 조명하는 가운데에서 올바른 관계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모조직에 전망에 있어서는 탁아운동의 주체역량으로서 교사조직화의 문제와 대중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변혁운동과의 관계속에서 부문 운동체인 탁아운동이 변혁운동에 복무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면서 주체역량에 대한 파악과 시대적 요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탁연대와 법개정투쟁에 대하여는 일단 거부지역과 신고지역이 1년의 활동속에서 서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경과조치 마감이라는 당면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민탁연대의 중요성과 시,도차원의 개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93년의 활동속에서 개정활동이 중점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결합을 위한 구조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탁아소 별곡

뱀이 삼킨 코끼리



채금주(북부 동근나라 어린이방)

『애들아, 이게 무슨 그림일까?』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 그림을 햇님반(5-6세)어린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거꾸로 돌려보기도 하고, 종이 뒤를 살피기도 했다. 여섯살 재현이가 물었다.

『오늘 공부는 알아맞추기예요?』 『아니, 이건 선생님이 어떤 책에서 본건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길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무슨 책인데요?』 재현이는 힌트를 얻으려는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모른다는 게 의아해서인지 대뜸 책이름에 관심을 보였다.

햇님반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자고 제의했다. 호기심 많고 율기 잘하는 다섯살 지선이는 오른쪽 끝에 있는 까만점 (보아뱀의 눈)을 가리키며 『여기있던 실은 어디갔어요?』하고 물었다.

『실은 뭐하는데 쓰이는데 ?』하고 되물자 『실이 있어야 못에다 칼을 걸어놓지요』 한다. 아마 지선이는 손잡이가 달린 칼로 생각했나보다.

그러자 옆에 있던 기정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지선이를 힐끔 보더니 『야, 이게 무슨 칼이냐? 화살이다. 화살!』한다. 승원이와 승완이는 한참을 살펴봐도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속상해 했다.

그림을 쏘는듯이 보고있던 지선이가 불룩 튀어나온 곳을 가리키며 『이 속엔 무

엇이 들어있어요?』하고 물었다. 보아뱀 속에 코끼리를 그려 주었다. 지선이는 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

뜸 『야! 뱀이다, 뱀! 코끼리가 뱀속에 들어갔다!』큰소리로 외쳤다.

지선이의 말을 듣고 정은이도 코끼리가 집이 없어서 뱀속에 들어갔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재현이는 순경아저씨가 뱀속에 숨은 것이라고 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막상 이렇게 어린이들이 맞추는 걸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때문지 않은 이들의 눈이 사물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채금주씨는 지난 89년에 탁아활동을 시작하여 북부지역 밝은집과 동근나라 어린이방에서 탁아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출산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탁아소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재미있었던, 엉뚱하지만 아이들 나름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대화내용, 사건 등을 기록하여 보내주세요.

탁아소 별곡에 실어드립니다.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 >

지난 11월 24일 (화) 오후2시부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92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제조업근로여성의 육아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는 직장탁아소의 국가,기업체 근로자 3자의 공동부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규정 적용대상의 현실화 등 직장탁아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경인지역 제조업체에 다니는 여성근로자 5백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무료의 개별 직장탁아 (52.9%),유

료의 개별 직장탁아소(19.9%) 순으로 선호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체 5백20여개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4개,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자로 참여한 본 회 최현숙 회장은 국공립,민간,가정탁아소 활성화 방안을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가운데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세미나 관련자료는 연합회 사무실에 있다.

< 사대위 주최,3당 복지정책비교 및 후보자 간담회 보고대회 열려 >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사대위)」주최로 지난 11월 28일,종로4가 성당에서 「3당 복지정책 비교 및 후보자 간담회 보고대회」가 열려 본 회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대위는 그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요 3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건언,선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3당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답변을 듣고 각 후보자의 면담을 추진하였

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3당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었으며 이를 풍자한 촌극이 마련되었다.

탁아문제에 관해 3당 모두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민주당,국민당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계획을 밝혔다. 사대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료집을 펴냈으며 연합회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보육위원회 열릴 예정>

서울시는 12월 26일(토) 12시에 서울시 보육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92년도 보육사업추

진에 대한 평가와 93년도 추진계획 논의이며 서울시 보육위원회는 본 회 최현숙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한국보육교사교육훈련원연합회 창립 세미나 열려

12월 10일 (목) '한국영유아보육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보육교사교육훈련원연합회 창립기념 세미나가 전국 24개 교육훈련시설 관계자,교육생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YWCA대강당에서 열렸다.

양옥승 덕성여대교수의 '한국 영유아보육 현실과 전망'의 주제발표에 뒤이어 '보육교사양성교육의 과제와 개선방향,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영유아보육사업정책방향'등 세가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탁아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한 보사부와 교육부간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언급된채 양성교육을 받고 난 보육교사의 전문성정도를 문제로 삼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이에 반발하는 보육교사들간의 대리전적인 양상을 보여줬다. 또한 한해 6,600여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따른 수급의 계획없이 교육기간의 연장 (주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이상으로),수강료의 인

상, 보육대상의 제한 (만 3세미만까지)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보사부 가정복지과 과장의 응답내용중에서 주목할 것은 직장탁아소 설치지원의 별 효용을 갖지 못한것을 들어 지역사회탁아시설로 확충방향을 바꾸고, 근로자 300인으로 조정하고,사업주가 설치를 의무하는데 따른 강제규정을 둘 것등과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재정보조는 96년도까지 계획이 없으며,이후 3세미만아와 저소득층 아동의 우선 입학에 강화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을 지침에 담을 것을 시사하였다.

하여튼 세미나 참석자들은 흩어져 나오면서 유아교육과의 인원적체가 있는 가운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개는 수긍을 하는 눈치이면서도 보육교사로서의 몫은 달리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편집부)

모임과 모임

< 지역 대표 자 회의 >

11/19 서울경인 지대의 (안양, 중부 북창)

대선본부 활동으로 자모교육실전훈련 기로 결정함. 그리고 재정사업계획을 보고받고 담 당자로 최선희 사무국장을 인준하였다. 11월 21일 예정인 사무실이전식 공고와 각 지역의 달력판매사업을 점검하였다. 12월 4, 5, 6으로 11월 21일 예정인 사무실이전식 공고와 각 지역의 달력판매사업을 점검하였다. 를 구성하여 그 다음주 목요일에 만나

12/3 서울경인지대의 (구로, 안양 북창)

월초 모임을 지역보고에 역점을 두기 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로 해서 각 지역의 개특위 활동과 대선 간부수련회 일정검토와 인원을 확인하 투쟁활동, 그리고 각 탁아소의 상황 등 고 지역활동 총평을 실시하여 다음 지 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며 지역보고 이 대의때 정리, 보고하기로 하였다. 후 안전화 시킬 사안을 뒤에 따로 선정

12/8 지방지대의 (광주, 마산, 전북 북창)

각 지역의 92년 평가와 93년 계획은 에서 지대의에 제안할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서 준비가 안된 관계로 본 회의 는 서면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였 에서 수합키 어려웠다. 이에 12월 17일 다. 또한 부산지역위에서는 수련회가 까지 총준위에 우편으로 발송기로 하 평일(4-6, 월-수)로 지역내에서는 참석 었다. 이날 은 지방지역대표자회의의 하 키 어려움이 제안되어 일정조정이 제 반기 활동을 중심으로 년 평가를 하였 안되었다. 수련회장소의 경우 서울로 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담당간사를 들 썬서 각 지방의 경우 참가비 조정에 대 것을 총준위에 제안하는 한편, 총준위 해 제안되었다.

< 영 유 아 보 육 법 계 정 특 별 위 원 회 >

* 서울경인개특위 : 지난 한달동안 서울경인 개특위는 경과조치와 관련하 여 회원탁아소가 시설조건과 시설장, 교사자격조건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 해 11월 11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실태 조사를 하였다. 현재는 분석작업을 하 고 있으며 12월 5일 간부교육에서 발 제한 '93년 개정투쟁의 전망과 진로' 에 대한 논의와 점검작업을 하였다.

개특위는 현재 평가와 내년 사업계획 을 잡았으며 내년 1월 13일에 첫모임 을 하기로 하고 올 한해 활동을 마감 하였다.

* 지방개특위 : 지난 11월 17일 모 임 이후로 지방개특위는 실태조사를 함께 했으며 12월 22일 모임을 통해 지방개정활동의 일정과 교육일정을 잡을 것이다.

< 자 모 조 직 분 과 >

대통령선거 자모교육전담반으로 화 대, 편성되어 자모교육실전훈련(워크) 을 하였다.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커리 을 준비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의 클럼)준비와 교육강좌 중 '교사회'에 대선관련 활동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활 동을 하였다. 그리고 중앙자모교육전담 반 활동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교 사 조 직 분 과 >

교사정치토론회 실시 이후 평가작업 을 하였다.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커리 클럼)준비와 교육강좌 중 '교사회'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92년 활동평가를 하였다.

< 아 동 교 육 분 과 >

아동교육분과는 92년 활동평가와 93 년 동계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다. 1년 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분과장들에게 박수를 보 낸다.

8월부터 진행된 사진 소모임이 아직까 지 적극적인 활동의 내용을 잡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

< 교 육 연 구 부 >

『제4회 아동관 토론회 여자?남자? -성평등, 인간화 교육』를 12월9일에 하 였다.

사업준비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그 구조와 내용이 좀더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오는 12월 23일 평가를 하고 내년

지역위원회 소식

서울경인지역위 소식은 11월 19일과 12월 3일 서울경인지대외에 제출한 보고서와 간추린 것이며, 지방지역위 소식은 12월 8일 지방지역지대외에 제출한 것을 간추려 실었습니다.

지역위원회 소식을 간추리는데 있어 편집부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이유

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죽은 보고'가 아닌 '살아있는 활동과 사업의 전파'를 위해 각 지역의 대표들, 통신원께서는 위 육하원칙에 맞춰, 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반응 및 평가까지...(편집자 주)

< 북 부 >

11/10 지역위원회 월례회 : 11/6 삼양, 정릉지역모임 대선토론회 보고를 통해 '지역운동을 둘러싼 대선 정세'와 '대선시기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발제를 하였고 정치색은 띄지 않되 반민자선전, 공감단 활동, 빈민운동 정책선전을 해낼 것을 내용으로 잡았다.

대선 공감단 활동과 자모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상계동 공감단 사례 발표와 유인물 배포에 자활의 협조와 지역교사 대선교육의 필요 등이다.

11/13 지역위원회 학습: 사회복지운동론 자료에 대한 발제와 토론.

11/17 교사 대선활동 교육: 대선시기의 활동가의 입장확인 및 실천방안, 대선대책반 활동에 대한 토론을 벌임.

11/23 지역위원회 학습: 아동관 토

론회 자료 논의.

11/26 지역위원회 평가 연미에서 각 탁아소 평가와 분과평가, 지역활동평가를 하였다.

등근나라에서는 12월 1일 '교사-자모관계 준비모임'이 열렸다. 내용은 [등근나라 교사-자모관계의 발단 및 경위를 정리하고 교사의 권위에 대하여, 자모회 운영에 대하여, 교사-자모관계 점검에 대하여] 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 12월 3일에 전체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했다.

12/4 대선에 관한 실무자교육이 지역내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빛교회에서

12/6 삼양, 정릉지역 공감단 발대식 및 가두선전전 하였음.

주간 자모교육안 내용 마련과 지역활동 일정논의, 11/16 시민회의와 결합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주3일 반상근 실무요원을 파견하기로 하여 박금희 (꿈나무)교사가 참석하기로 함.

< 동 부 >

11/28 공감단 발대식에 참석: 대선활동을 위한 '공명선거와 민주정부를 바라는 성동시민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하고 주요활동으로 주권바르게 행사하기, 공감단 활동과 현재 선거교육 참여하는 등을 잡음.

오손도손 애기방은 금호동, 행당, 옥수, 용봉동 등 지역의 공감단 활동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여 교회, 절, 전교

조, 야학등에 제안서를 발송.

지역위 대선활동모임을 구성하여 자모교육내용을 마련하고 지역상황을 공유, 홍보를 교환등을 하였다.

지역개특위에서는 구청 질의서를 계획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른 형태의 활동을 계획 중. 지역위 년 평가는 12/10 에 함.

< 부 천 >

대선활동이 공선협과 각 탁아소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롬비니동산에서는 오정동을 대상으로 1회 교육과 2회에서 슬라이드 상영(12/3)을 하였고, 톨튼이에서는 삼정동을 대상으로(12/15 대선교육), 새봄에서는 약대동을 대상으로 실시(11/26)하였다.

11/12 민탁연대 모임이 '부천시민신

문'회의실에서 있었다. 8곳의 18명이 참여하여 모임의 취지설명과 개별탁아소 소개, 모임의 정례화 합의 등을 진행. 12월 중으로 부분적인 동별모임을 예정함.

12/2 공동 임원자모회의: 개특위, 사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사업보고와 대선 슬라이드 상영과 회식.

< 양 양 >

12월 자모회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권리행사, 올바른 주권행사에 대해 자모교육을 함.

지역위 월례회에서는 '좋은 놀이는 노동의 준비이다'를 읽고 토론한 후 동부지역 개나리동산을 찾아 영역별 놀이공간 구성에 대해 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내년부터 영역별 놀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12/28 지역위 교사 망년회, 3회 아

동관 토론회 자료 논의, 년평가와 계획을 짜기로 함.

안양지역의 경우 12/25 전후로 어린이 재물잔치 준비중임. 겨울 방학은 12/28-93년 1/2임. 안양지역의 한무리, 우리 아가방은 군포치과의 6개월 회원제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구강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불소용액으로 아이들 양치를 하는데 충치예방에 효과있음.

< 양 산 >

11/16 지역위 대표자회의: 보수교육 필요대상, 시기등을 검토하고 대선 이후로 전달대 2인, 오손도손 2인의 교사가 보수교육을 받기로 하고, 92년 사업평가들을 제안하였다.

.지역위 대선본부의 활동은 11/13에

< 인천 >

신진교사교육이 11/19, 11/26, 12/3에 열렸다.

11/22 인탁위 아바축구대회가 열려 6개탁아소에서 총 38명이 참가하였다.

11/27 지역 공감당 공동 교육이 있어 인탁위와 여노회, 공부방연합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슬라이드 상영과 교육을 받았다.

11/28 인천지역 공감단 발대식 및 걷기대회에, 12/6 가두 선전전, 12/12 부정선거 규탄 및 걷기대회에 참여.

12/2 인천시의회 본 회의에서 민간

탁아예산 5억5천5백만원이 통과되었으며 인탁위에서 제안한 지원의 원칙을 받아 들어 인천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 방침을 수립, 인천시에 양성교육기관의 설치, 부녀복지관내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대해 통과됨.

12/6 가두선전전.

12/15 '인천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총회 및 창립 축하잔치

12/20 지역 총회, 12/21 민간탁아소 원장모임 예정

< 수원 >

11/13 대표자회의 :교사재교육건, 대선토론, 지역평가의 내용으로 진행. 지역내 전체 교사의 통일적 공유를 위해 11/24, 12/8 두차례에 걸쳐 재교육을 실시하고

11/17에는 대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와 토론 진행하여 지역위내에서는 '지탁연의 선거방침'에

따르고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지역위내 대선 자모교육 전달반에서 책임주체를 선정키로.

11/24 교사재교육 '탁아소 규율과 규칙'

12/7 각 집 대표자회의.

12/8 교사재교육 '지탁연조직알기'

< 대전 >

대선활동으로는 자모회 임원과 교사 1인이 조를 짜서 자체에서 제작한 대선홍보물을 가지고 약1주일에 걸쳐 가정방문을 하였다. 대체로 호응이 좋았다는 평가이며, 연대단체인 대전여민회와 국민당 나체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같이 하였다.

11/26 자모교육에서 민명수 (대전한밭소비자협동조합 이사)씨가 강연.

11/28 공동김장을 하여 자모회 친화력과 활동력고양에 도움이 되었다.

12/10 자모회에서 대선활동을 마무리작업을 할 예정임.

이날 특히 신탄진에 개로 개원하는 신나는 놀이방이 입주하는데 원아모집 등의 본격적인 운영은 조금 시일을 두고 할 예정임.

12/14 지역평가와 지역총회 예정.

12/15 여연에서 제작한 선전물을 가지고 가두선전을 계획.

12/22 제룡잔치를 김한 샘글가족 성탄행사하기로 함.

< 대구 >

11/8 배꼽 일일찾집, 12/14 달구벌 일일찾집.

12/5 민들레에서 활동하던 교사2명이 '디딤탁아소'를 만들어 개원.

< 군 산 >

12/13 자모교육(대선에 관한 교사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하고 이후 주변동네에 대자보작업과 유세장에 선전물 배포등을 계획하고 있음. 지역특성상 정책을 중요시하지 않고 지역연고에 따라 인물선정이 두드러짐.

대선활동은 주간교육안과 선전지를

12/17 월례회에서 지역평가 예정.
12/20 계속된 교사부족으로 인해 민들레 어린이집이 문을 닫음.
12/21 대탁위 송년잔치.

< 부 산 >

11/19 여성대회를 연대하는 여성단체들과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단체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촉구하였다. 주회는 '민주정부를 바라는 부산지역 여성모임'으로 반 민자, 반 국민에 함께하는 범 여성단체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12/6 유세장에서 윤금씨사건과 부탁위 자체에서 제작한 탁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선홍보물을 1만주 만들

어 선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음.
12/19 부탁위 하반기 수련회와 총회를 열어 지난 12월 5일 간부교육의 두가지 발제문(탁아운동론, 개정부정의 전망과 진로)에 대한 논의, 93년 계획 수립키로.

93년 동계수련회를 평일에 할 경우 부산지역에서는 전체가 참여키 어려운 실정.

< 마 산 >

.지난 11월 17일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마산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두레아가동산 김지숙, 마산지역위 대표) 주최로 18개의 탁아소 아동, 교사, 자활동 300여명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였다. 세발자전거경기, 50미터 달리기, 바

구니 커트리기, 오재미 주어오기, 체조 놀이등이 진행되었다.
.현재 마산지역위 두레아가동산의 김경이 선생님이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휴직상태이며, 김지숙 선생님은 출산휴가로 인하여 지역활동이 어려운 상태임.

우리들의 목소리

저물어가는 1992년을 되돌아 보며

박명숙 (성남 동방어린이집)

시간은 어느새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 마지막 달력 한장으로 시선이 멎는다. 가슴 찡찡해지는 계절 그리고 마지막의 여유. 어느덧 한해를 보내고 또다른 한해를 맞이함에 벌써 감각이 무뎠던 것은 아닐지! 달리 무언가를 생각할 채비없이 시간은 그리도 무뎠히 흘러 갔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새삼 곱씹어 보는 그런때는 아니던가! 등등의 생각들을 하며 오늘도 서둘러 탁아소로 향한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가지듯이 밥은 서로서로 나누어 먹는 것! 먹는 것!』 탁아소 문을 뚝뚝 열고 들어선 아이들의 광경은 또 요지경속이다.

배트룸이 수저를 들고 어설프게 수저질을 하는 아이, 그 수저를 들고 저마다 인사를 하겠다고 문앞까지 달려 나오는 아이, 안 돌아가는 혀로 밥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늘 하루의 총총한 일과를 알리는 신호일게다. 백일도 안된 민하와 둘을 갖 지난 태양이, 제민이 등 셋으로 개원을 한 지도 벌써 6개월 아이들은 이제 그만큼 컸고, 다른 아이들도 들어와 동방에는 식구가 벌써 열명으로 늘었다. 처음엔 백일도 채 안된 아주 조그만 아기를 안고 어찌 할 줄을 몰라 어설프게 만지며 찡찡 매기도 매일이었는데 그런 나름대로 힘겨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삼 즐거운 상상으로 떠올라 지기도 한다. 그렇게 나의 사랑도 싹틔졌지 하고..

문득 내가 직장탁아소에 대한 또 다른 전망을 갖고 발을 딛던 때가 생각난다.

우리들이 하여야 할 몫을 내가 찾았다는 기쁨이 아주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했던 것 보다는 아이들을, 사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어린아들들을 대할 때의 난감함- 직장 탁아소로서의 위상과 목표물을 갖고 출발했음에도 여러가지 운영의 어려움들 - 참으로 많은 벽을 느끼며 힘겨워 하기도 여러번이었다. 오리엔트 직장탁아소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속에서 출발해서 직장탁아소에 갖는 주위의 격려와 시선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정사업등을 구상해보며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직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의 숨가쁜 행로를 오리엔트 조합식구들과 부모, 아이들 모두 같이 해왔음이 이제는 커다란 힘으로 다가온다. 흐름후에는 밝음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그리고 더욱이 밝음에 빛이 더할 것 이라는 희망이 있다. 그 깨끗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나의 그늘을 지워줌으로써 한층 앞

날은 밝은 것이 아닌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견뎌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던 것 같다.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하듯 그 모든이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야 한다. 형식에 쫓겨추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내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동반한, 그 기쁨에 넘쳐하는 모양새, 그런것이어야 한다.

치열하게도 싸워왔던 마음의 방황과 고된일에 지쳐 만사가 다 귀찮고 싫어지는 생각이 들때면 그런 나를 격려하고 힘차게 일어서게 했던 주위의 사람

들, 이렇게 서로 힘들때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함께 하려고 하는 나의 소중한 주변이 있기에, 그리고 아주 소중한 우리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있기에, 올해의 어려운 일들은 새로운 발전의 힘이 될 터이다. 그래, 우리들의 힘은 아마도 내년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과제들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은 좀 더 힘을 실은 지혜로운 생활로. 다시금 힘찬 새 걸음을 기대해 본다.

사람들

* 김교연 : 탁아정책 연구부원으로 활동하시는 김교연씨가 12월 19일(일) 1시, 축협중앙회 2층 예식부에서,

* 김경태 : 현재 보사부 중앙보육위원, 본 회 지도위원직을 맡으며 애쓰시는 김경태 전 회장님이 12월 27일(일) 오후 2시, 대학로 흥사단에서,

* 박상희 : 구로지역 구로 놀이방에서 활동하시는 박상희씨가 93년 1월 17일(일) 오후 1시, 퇴계로 한국의 집에서 화축을 밝힙니다.

지탁연 전 가족의 축하를 드립니다.



'92년 한해를 보내며

박말신(광주 도담도담 아기둥지)

『광탁위는 지탁연의 문지기고, 지탁연은 조국통일의 밑거름이다!』

이 구호는 지난 92년 하계수련회때 동학사 남매탑에서 광탁위 교사들이 소리모아 외친 구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멋진 구호이다. 이 구호처럼 당차게 살기위해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며 '92년 한해를 보냈는가' 자문해 본다. 27년을 보내며 아니 이성이나를 지배했던 때부터 20년의 송년, 탁아소일을 하면서는 세번째의 송년을 맞이한다.

작년 이맘때 도담도담 아기둥지는 학동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채.. 방이 나가면 주겠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푸른 치과의 도움과 얼마간의 빚을 내어 지금의 집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아! 오늘로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들이 너무 순진했던가 아니면 바보였던가. 그방은 나갔으나 전세금은 올줄 모르고, 주겠다는 약속은 몇번인가 빈말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들은 찾아갔으나 '빨리 빚이라도 내서 주겠다'는 안주인의 말을 들었을 뿐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원고의 입장에 서서 판결을 받는 느낌은 그저 쓸쓸함 뿐이었다. 절고려움 속에서 법원을 들락거려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땐 이제 곧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웬걸 민사재판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김빠지는 과정이었다. 지금 1년여 정도의 이

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세상의 매운맛을 톡톡히 보았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전세금이 어떻게 해서 마련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정성인데..

내가 '92년 도담도담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절박하고 머리 아프게 했던 일이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압류에 들어갈 예정임)

하지만 우리에게겐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다.

도담도담 말 뜻처럼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탈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때. 7개월된 아이가 소쿠리 (차량 운행시)에 담아서 탁아소를 오고가던 때가 엇그제인데 이젠 재롱잔치 준비한다고 피노키오춤을 연습하는 모습을 볼때. 맛있는 호박죽을 보고 '이런 죽은 처음 봤어요!' 하는 귀여운 용주를 볼때. 자모님과 후원자님들로부터 '수고한다'는 말을 들을때 늘어졌던 나의 어깨는 다시 가슴을 꼭 껴게 된다.

'93년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네 아이들이, 우리네 자모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도담의 문지기로 열심히 일해 나갈것을 이 글을 통해 약속한다.

끝으로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집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올 겨울 군산으로 시집을 가는 김조순 선생님, 한살 더 먹은 나보다 먼저 가 눈송(?)을 받았지만 시집가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문화란

내가 원하는 여행지 - 광주 송광사

최선희 (구로 새터어린이집)

고속터미널에서 광주행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광주시외버스 터미널엘 가면 송광사로 가는 버스가 있다. 송광사까지 2시간정도 걸리는데 버스에서 내려 걸까지 20분정도 걸어간다. 걸까지 들어가는 이 길이 이승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같은 느낌이다.

내가 갔을때는 여름 피서객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 8월말이었다. 절문을 들어서면 핑크빛의 꽃나무가 눈에 띄는데 너무 화려해 나무란 느낌이 안든다. 대웅전 큰절과 화사하게 어울리는게 사진 찍힌것같이 떠오른다. 해인사를 생각하면 한복을 입은 다소곳한 한국여인상이 떠오르는데 송광사에 대한 느낌은 남성을 연상케한다. 웅장하고 무거워지는 절이다. 동네사람에게 어디가 좋냐고 물으니까 여기까지와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가 불일암이라 한다. 불일암이란 불교신자가 아니라 책을 통해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이 기거하는 곳이다. 나역시 스님의 글을 좋아하기에 불일암에 올랐다. 암자에 올라가는 길이 돌에 조그만 표시로 비자를 써놓아 처음들어가는 길을 찾기가 힘들었다. 조금 걸다보니까 소나무가 짙게 뻗어있는데 스님의 강직한 이미지

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피서객이 떠난 뒤라 두사람이 호젓하게 걷노라니 조용해서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다 내려서면 평야같은 산길이 나타난다. 풍수지리설을 모르는 사람도 아,여기가 명당자리로구나 느낄 정도로 산세가 탁트이고 멋있다. 20분정도 올라가니 대나무와 암자가 보인다. 절 앞뜰은 온갖 꽃나무를 심어 가꾸어 놓으셨다. 재미있었던 것은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유리컵에 국화2송이가 놓여 있었다. 스님의 여성스러운 취향을 보게되었다. 다 돌아보려니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불것도 없으니, 물맛이 좋으니 물만 먹고가쇼." 나는 웃음이 나왔으나 같이 간 일행은 투덜댄다.

갑자기 비가 내려 10분정도 앉아 뜰을 바라보다 비가 그쳐 내려왔다. 8월말이 되면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송광사다. 송광사하면 걸까지 걸어 들어가는 길과 암자에 가기 위해 걷는 그것이 꿈결같이 떠오르는 그리운 곳이다. 일하다가 쉬고 싶을때 1박2일로 잡아 가보시라. 가서 다시 일할 힘을 충전 받아 오길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읽는 책

다음에 소개하는 책은 모두 웅진출판사에서 최근에 펴낸 책이다.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어려우나 공부방 등 초등이 읽기에 좋다.
각 권 3천 5백원

절름발이 소년과 악동 삼총사

유일한 이야기

두다리가 불구인 작가 자신의 어린시절의 체험을 토대로 쓰여진 소설. 재치있고 탁월한 문장력, 짜임새 있는 내용구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 시대에 어린시절을 보낸 어른들이 읽어도 재미있는 내용

매일 경제 신문 기자 조영권씨가 전 재산사회 환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한 양행 창업자 유일한 회장의 삶을 진술하고 쉽게 담아냈다.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객관성을 유지한 속에서 특혜시비, 기업인의 정계진출 등으로 혼란한 요즘 시대에 바람직한 기업인의 전형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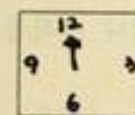


지탁연 베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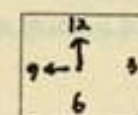
(판매란의 가격은 회원공급가격이므로 판매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판	우리네 아이들 달력 천5백원	보육프로그램 1권 4만원	자장가 테잎 세트 4천원	국악동요테잎세트 7천원
매	진짜 참기름 1병 8천원 구로 놀이방 (02-863-0468)	색색가지 양말 성인 천2백원, 아이 천원 인천 새싹방 (032-573-6304)	전농직배 지리산아카시아꽃 2만8천원 한정판매, 직접 만든 무공해 비누 매 잘 빠짐 장당 200원, 동부 개나리동산 (02-469-1325)	
	카드 판매 1장당 500원 부천 토포이 (032-676-1887)	일하며 키우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위임, 백산서당) 일본 탁아운동사에 대해 지난 4,5월에 지탁연에서 번역물을 공부하였는데 이번에 책으로 나왔다. 특히 한국탁아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하여 지탁연 활동을 자세하게 다뤘다. 정가 5천원, 회원 공급가격 4천원 사무국 (02-838-3296)		
알	시, 소설, 동화 등의 창작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분을 찾음. 관심있 는 분은 부산아기자람터 김향진교 사에게 연락 바람 (051-816-4383)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대사관 앞 수요정기시위 50회를 맞이하는 날" 12월 23일 (수) 정오 일본 대사관 앞	
림	동계수련회 및 총회 1993년 1월 4-6일 서울 숭실대 사회봉사관	매달의 화제영화를 관람하실분 연락 바람 (편집부)	연합회 사무실이 93년 수련회 관계로 1월 8일(금)부터 문을 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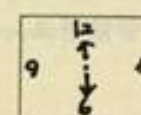
검은 점이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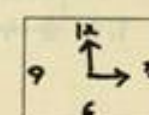
0시



9시



6시



3시

편집부에서

지난 11월호를 보고 말씀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기획물인 대선투쟁을 준비한다 (2)가 지탁연 대선투쟁방침에 대한 논의와 자
모교육내용이 기획을 준비한 편집자의 해설이 없는 가운데 함께 들어가 내용연결
에 있어 어려웠다는 지적도 해주셨으며, 처음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
전히 한두개의 오타가 보여 신뢰성에 있어 떨어진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마지
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식지의 유연한 내용 만들과 정확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
다.

벌써 9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탁연이 걸어왔던 92년의 발자취는 그 어
느때보다 깊고 굵게 탁아운동사에 남을 것입니다. 12월 송년특집호를 내면서 편
집부는 그간의 우리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이후 활동의 경로를 밝히는데 도
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하고보니 의욕만이 앞섰을 뿐 부끄러
울 따름입니다.

지역내 민주단체들과 함께 대선활동을 열심히 한 지역을 찾아 만나보았습니다.
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취재는 했으나 편집부사정으로 실지못함을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일부러 밤늦게까지 취재에 응해주신 안산지역위 선생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1월에는 수련회, 방학, 각 지역위원회 계획수립의 마무리 관계로 인하여 1월호
를 내지 않고 2월초에 1,2월 합본호로 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소식지가 일곱권이나 나왔다. 지난 1년동안 가장 힘들고 애썼던 것이기는 하
지만 92년을 마무리하자니 아쉬움이 남는다. (회연)

하루에 두쪽 이상 책을 읽는 지탁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식지
부터) 93년이 다가옵니다. 항상 새로워지려는 웅골찬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이하시길.. (애용)

아- 호 ! 드디어 92년을 마감하는 소식지를 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단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려나 ? 착잡한 마음
뿐이다.

(정은)

제목: 함께 가는 길 12월호
발행인: 최 현 숙
편집인: 정희연, 이애용, 이정희, 서정은
발행일: 1992년 12월 18일
발행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838-3296

